# 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제1473호


# 시장논리가 '한진해운 운명' 갈랐다

## "국익차원 접근" 입김에도 시중銀 만장일치 지원 거부
## 첫 채권단 주도 대기업 구조조정… 결국 법정관리로

결국 시장 논리가 대기업을 쓰러뜨렸다. 한진해운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한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한진해운을 지원하라는 외부 압력에도 시중은행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3·8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의 뜻을 따랐다.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배제된 채 채권은행 주도의 시장 논리가 힘을 얻은 미증유의 대형 구조조정 사례다.

그동안 대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보다는 청와대와 정부 등 정치 역학과 비경제 논리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 한진해운도 '동정론'이 일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채권단의 논리는 단순했다.

당장 한진해운에 들어가야 할 자금은 6000억 원 정도인데, 한진그룹이 가져온 자구안은 이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에 신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채권비율은 각각 산은 66.2%, KEB하나은행 12.2%, NH농협은행 8.5%, 우리은행 6.8%, KB국민은행 5.5%, 부산은행 0.8%다.

이들은 이미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비하고 있었다.

대손충당금을 90% 이상 쌓았기 때문에 확실한 자구안이 없는 한 신규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신규자금이 투입될 경우 그간 연체된 해외 상거래 채무 상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국내 은행은 자신들의 자금이 해외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단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결정에 대한 전권을 채권은행에 위임했다.

하지만 채권단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경우 국회 청문회(서별관회의)나 대우조선해양 학습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압 논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전권을 산은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유미·황윤주·홍샛별 기자 jscs508@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가 임박했다. 31일 오전 한진해운 임시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직원들이 한진해운 선박 모형 앞을 지나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법인세 인하' 급물살 탄 美

## 자국 기업 해외 稅폭탄 맞으면 미국서 세금 감면… 세수 위협
## 조세부담 줄여 기업유출 막자 정치권 법인세 조정 논의 활발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인 130억 유로(약 16조220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세제 개혁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을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세제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2면

EU 집행위원회(EC)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애플로부터 추가 징수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EC가 개별 기업에 부과한 세금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결정으로 미국 정부의 세수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며 조속한 세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세금을 내면 그만큼 세금 감면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결과적으로 미국 세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수년간 여야 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세제 개혁 논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4%로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고 야당인 공화당은 8.75%를 제시한 상태다. 미국 재무부는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돈이 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EU의 결정은 매우 심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 정치권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대선 앞두고 지출 확대 내년 400조 '슈퍼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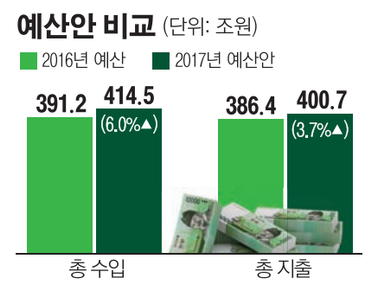
정부가 30일 전년 대비 14조3000억 원(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의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05년 200조 원에서 12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년 3%에 비해 지출을 더 늘렸다. ▶관련기사 2면

분야별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2.5%나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 6.9%, 교육 6.1%, 보건·복지·노동 5.3%, 국방 4.0% 순으로 확대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전년 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지출 증가분 14조3000억 원 가운데 9조2000억 원(64.3%)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비교** (단위: 조원)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2017년 예산안 합동브리핑에서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 "韓·中 꼴 날라"… 日, 조선업 재편 가속

## 미쓰비시重, 이마바리 등 조선3사와 제휴… 규모 키워 글로벌 경쟁력 확대

일본 조선업계가 새로운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조선·해운 업계의 대들보였던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휘청거리자, 똑같은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4개사가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과 오시마조선소, 나무라조선소 등 3사와 상선 사업에서 제휴를 맺기로 했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신형 선박 개발 및 부품 조달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이 설계한 선박을 3개사가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4개사의 선박 건조량을 합하면 한국 현대중공업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부상하게 된다.

일본 조선업계가 이처럼 자발적으로 재편에 나선 건 그만큼 글로벌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IHS에 따르면 세계 신규 조선 수주량은 2015년까지 2년 연속 감소했고, 올 상반기(1~6월)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줄었다.

그나마 일본 조선업계는 환경규제 강화를 앞둔 반짝 수요에 힘입어 2015년에는 선박 수주가 전년보다 15% 늘어나는 등 제법 선방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올 상반기는 전년보다 80%가량 줄었다.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 신규 수주는 어려울 것으로 비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조선업계의 통폐합이 가속화하자 생존을 위해선 더 이상 재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조선업계는 중국과 한국 기업이 대두하자 돌파구 차원에서 재편을 단행했다. 2013년 IHI와 JFE홀딩스 산하 조선업체가 통합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탄생했고, 2014년에는 나무라조선소가 사세보주코교를 인수했다.

이번 4개사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신규 수주가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기술과 경영 역량을 집중시키고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마바리조선과 오시마조선소, 나무라조선소는 철광석 등을 나르는 벌크선 건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3년에 이미 이마바리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공동 수주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번에는 상선 분야로까지 제휴 범위를 넓혀 규모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항할 셈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세계 조선건조량 순위** 단위: 만t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2015년)

| 순위 | 기업 | 국가 | 건조량 |
|---|---|---|---|
| 1 | 현대중공업 | 한국 | 626 |
| | 이마바리+오시마+나무라+미쓰비시중공업 | 일본 | 511 |
| 2 | 대우조선해양 | 한국 | 365 |
| 3 | 현대삼호중공업 | 한국 | 328 |
| 4 | 삼성중공업 | 한국 | 307 |
| 5 | 이마바리 | 일본 | 298 |
| 6 | 현대미포조선 | 한국 | 244 |
| 7 | 재팬마린유나이티드 | 일본 | 218 |
| 8 | 다롄선박중공업집단 | 중국 | 205 |
| 9 | STX조선해양 | 한국 | 181 |
| 10 | 상하이와이가오차오 | 중국 | 163 |
| 11 | 오시마조선소 | 일본 | 131 |
| 30 | 나무라조선소 | 일본 | 62 |
| 68 | 미쓰비시중공업 | 일본 | 20 |

# '제네시스' 수출길 발목잡은 파업

## 현대차 EQ900 등 전량 국내생산
## 노조 추가파업 땐 매출 손실 2조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 파업 여파로 2조 원대 매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급여 인상률이 적다는 이유로 노사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자 추가 파업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노조 파업으로 1조5000억 원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현대차가 추가 파업 시 손실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3년 2조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올해 임금협상안이 역대 최저 찬성률로 부결되자 추가 파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탓이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제7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르면 9월 1일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사측의 조건 여부에 따라 다음 날인 2일 8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파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추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올 3분기 현대차 판매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특히 지난 5월 북미시장 수출을 시작한 제네시스 EQ900과 G80 주문량을 공급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Q900과 G80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된다. 안철우 기자 acw@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美금리 변수에도 증시 분위기 차분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참여자들이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 선물가격은 12일 11.2를 기록해 작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연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머니&이슈 ▶18



핀테크가 바꾼 금융지형

머니&라이프 ▶21



ISA 수익률 비교

퍼스트클래스 스토리 ▶13



드라이어 명가 유닉스




이병우 센터장 ▶6



홍석조 회장 ▶9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 인턴채용 줄이고 창업 독려… 신산업 지원 늘려 성장동력 창출

## '400조 슈퍼 예산' 어떻게 쓰이나

**일자리 예산 17.5조… 10.7%↑**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성과 미흡한 청년인턴 지원 축소**
**창업지원·직업훈련 투자는 확대**
**자율주행차·증강현실·AI 등**
**9개 R&D 프로젝트 집중 투자**

최근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근본적인 경제변화에 직면한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17년 일자리 예산안은 17조522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6984억 원) 늘려 잡았다. 정부 총지출 대비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일자리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3.7%)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직접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0.1%)하고 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화를 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 인턴 지원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한다. 대신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우수 재도전 기업인을 중심으로 교육부터 상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에 걸쳐 600억 원을 지원한다. 실전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 매칭 대학창업펀드 150억 원도 편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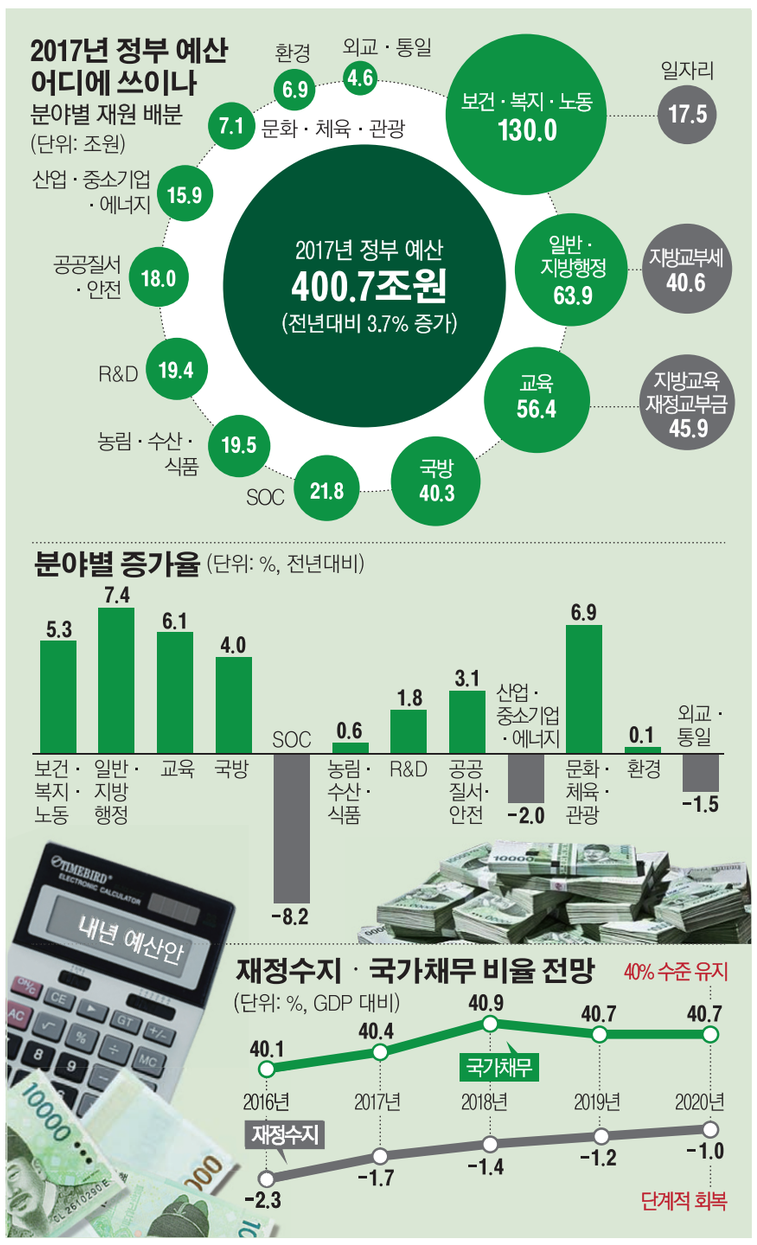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은 30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6300개소에서 1만 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려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본인(300만 원)과 기업(300만 원), 정부(600만 원)와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2년 근무 시 1200만 원과 이자를 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300억 원을 책정했다.

성장동력 분야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에 95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행복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등 4개 프로젝트에 205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에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3조1000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국비 1조7000억 원에 지방비 1조 원, 민자 4000억 원으로 구성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복지 예산 늘었지만

## 공적연금 지출 등 자연증가분 2.6兆

**130조 중 85조, 66%가 의무지출… "복지문제 해결 역부족" 지적**

내년 예산은 덩치는 커졌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늘어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증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같은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16년 122조9000억 원보다 5.3% 늘어난 130조 원이 책정됐다. 복지 예산 130조 원 가운데 66%(85조 2000억 원)가 기초연금 지급 등 법률에 정해진 대로 써야 하는 의무 지출이다.

증액된 복지 예산을 보면, 고령화 현상에 따라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이 45조3998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6936억 원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층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분 2269억 원 등도 자연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5%에도 못 미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의 증가분이 2조6000억 원을 차지해 자연증가분에 기댔다"며 "저출산, 양극화,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국고 지원은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고령화율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지만, 작년보다 2210억 원이나 줄어든 6조8764억 원만 편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에 더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누리과정 예산, 불씨 여전

## 정부 특별회계 신설… 野 "별도예산 편성을"

**갈등 첨예… 국회 통과 미지수**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해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교육세 세입 5조1000억 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편성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교육감들과 야당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1990억 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수년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 실생활 도움되는 예산은

##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가 내년에 시작된다.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도 있다. 내년 상반기 2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료가 정해질 예정이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 역시 알아두면 좋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셋집에 들어갈 때 호당 2억 원까지 연 2.1~2.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에게 2년간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이 월 12만 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 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각각 얹어준다. 2년 후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도 새로 생겼다. 만 39세 이하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까지 필요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43만 7000개가 내년에 생겨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대상이 된다. 보육시설 봉사, 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로 월 10만~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내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인공수정(최고 50만 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최고 300만 원)까지 많게는 3~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를 위해 부인에 이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가는 육아휴직 지원비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곽도흔 기자 sogood@





수아의 배고픈 방학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방학
하지만 수아는 방학이 반갑지 않습니다

일하러 나간 엄마의 늦은 퇴근을 기다리며
스스로 식사를 챙겨야 하는 아홉살 수아

방학이면 하루종일 혼자인 수아는
매일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대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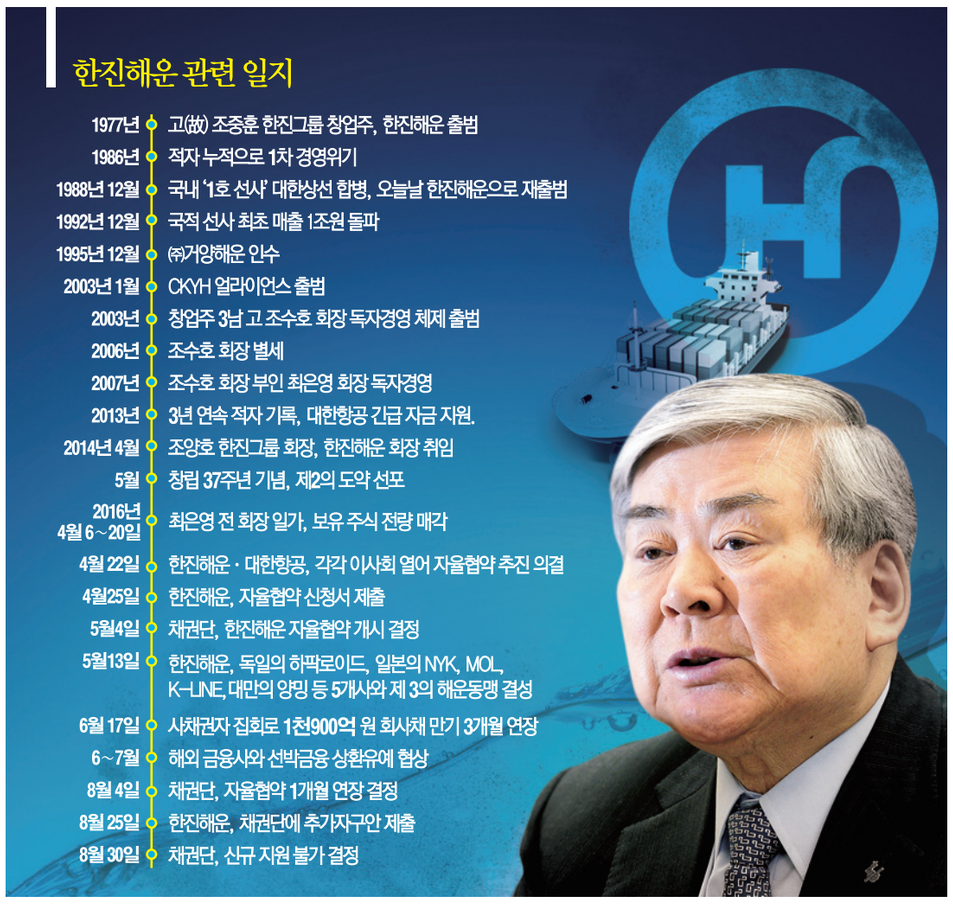
수아와 같은 아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본 캠페인은 방학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아동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굿네이버스는 급식제공,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아 후원하기

# 해운동맹서 퇴출 영업 불가능…사실상 해운시장서 '강퇴'




##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行

### 산은 등 채권단 '신규지원 불가' 결정
### 오늘 이사회 열고 법정관리 신청
### 조중훈 창업주 '글로벌 물류' 뜻이어
### 세계 7위 대형 선사로 키워냈지만
### 2006년 조수호 회장 타계후 '흔들'
### 조양호 회장 구원등판…불황 못이겨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수송보국(輸送報國)' 경영 철학을 이루겠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꿈이 반쪽으로 전락했다. 아버지 조중훈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법정관리를 막지 못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최근까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났으나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업자와 채권자 간의 환경 차이도 극복하지 못했다. "1조 원 이상 투입하고 추가 지원에 대해 고뇌한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채권단 입장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을 꺾지 못한 셈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4000억~5000억 원의 자구안을 제시한 한진그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전해들은 조 회장은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내는 등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30일 채권단 회의 결과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사채권자 집회도 무효화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얼라이언스인 '디 얼라이언스'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올스톱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국내 1위, 세계 7위의 대형 선사인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 조중훈 창업주가 1977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한 한진해운은 꾸준히 해상운수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한진해운 경영을 독자적으로 맡아 왔던 고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경기 침체를 비껴가지 못했다. 결국 2014년 4월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해운을 넘겨 받으며 무보수 경영을 선언하고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운업 불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진해운 경영 2년 만에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을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 알짜자산 이미 다 팔아…"현실성 떨어져"

###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어렵다" 선그어
### 회생 결정땐 '제3자 M&A' 시나리오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현대상선과의 합병설이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판단이다. 청산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현대상선이 인수할 수도 있지만 알짜 자산 대부분 매각된 상태라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산이나 회생 수순을 밟게 된다. 한진해운 안팎에서는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화주들의 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 퇴출 등으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하다.

청산절차에 들어가도 굿컴퍼니를 따로 떼어내 현대상선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자산을 대부분 매각하거나 (주)한진이 가져간 상태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당국 역시 두 선사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일 "이미 채권단에서 합병 가능성을 검토했고, 채권단은 합병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합병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제3자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만약 법원이 회생을 결정할 경우 절차상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을 결정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매각을 위해 인수후보군을 추리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한진해운 자율협약 종료로 물류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외 선사가 인수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는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으로 미주노선에서도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만약 머스크가 지분 투자를 통해 한진해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아시아-미주노선 점유율이 16.42%로 높아지며 기존 1위인 대만의 에버그린(10.19%)을 압도하게 된다.

황윤주 기자 hyj@

## 되살아난 한진그룹株

# 해운 족쇄 푼 대한항공·한진칼 이틀연속 강세

### "불확실성 해소…실적효과 본격 반영"

한진해운의 침몰 소식에 한진그룹주가 이틀 연속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간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한진그룹주가 점차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31일 오전 9시 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은 전날보다 6.32% 급등한 2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5.85%)에 이어 2거래일 연속 강세다. 대한항공(4.66%) 역시 이틀 연속 상승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 추가지원 우려로 몸살을 앓던 그룹주들이 리스크 해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풀이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적 효과가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상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최근 여객 업황 호조를 고려할 때 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주가 상승 여력은 70.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진칼 역시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채권단의 결정은 한진칼 주가에 긍정적"이라며 "이제 진에어, 정석기업 등 자회사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날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 거래를 중단시켰다.

한진해운은 오후 1시 30분께 전날보다 24.16% 폭락한 1240원을 기록하고 거래정지됐다.

채권 가격도 급락세를 보였다. 잔존 1개월 남짓한 9월 27일 만기 한진해운 3년물 71-2호 채권은 전일 대비 1245원 급락한 2905원에 거래를 마쳤다. 9월 30일 만기 한진해운 5년물 73-2호 채권도 2800원(3116.129%)으로 전장 3980원(1782.788%)에서 1000원 넘게 빠졌다. 내년 6월 7일 만기 한진해운 5년물 76-2호 채권 또한 전장 3800원(163.701%)에서 2730원(232.376%)으로 급락했다.

유혜은 기자 e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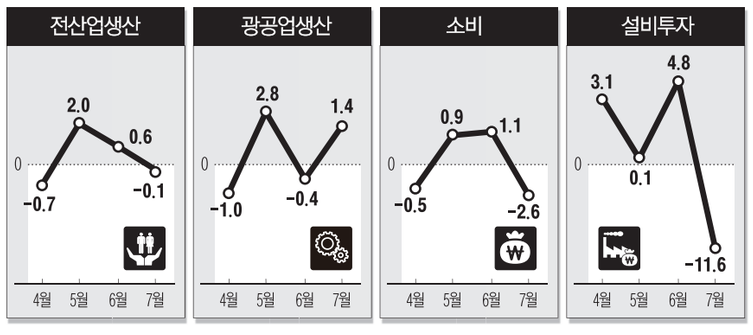


# 車 개소세 인하효과 끝…다시 소비절벽

## 7월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생산 줄면서 0.1% 감소
3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소매판매 2.6%·투자 11.6% 뚝
'올림픽 특수' 광공업 1.4% 증가
8월 체감경기지수도 1P 떨어져

**생산·소비 변화** 단위: %(전월 대비) ※ 출처: 통계청




반짝 호조를 보였던 실물경기 지표가 7월 들어 다시 일제히 고꾸라졌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줄면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지난 4월 -0.7%를 기록한 산업생산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 1월(-1.2%) 이후 6개월 만이다.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증가했지만, 이는 올림픽 특수 등으로 TV용 LCD 패널이 증가하는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소비와 투자도 동반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6% 감소해 2014년 9월(-3.7%)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로 끝나면서 타격을 입은 탓이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1.6%나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 폭 역시 2003년 1월(-13.8%) 이후 최대치다.

이를 반영하듯 기업 경영자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1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BSI란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대기업은 78로 전월과 같았고, 중소기업은 59로 5포인트 내렸다. 수출기업은 1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기업은 68로 3포인트 내렸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상승했고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용 둔화, 생산 투자 회복 지연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 조윤선 문화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야 "수상한 예금·과소비" 추궁

### 예금 증가분 등 출처 불분명
### 여가부 장관때 생활비 연 5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수상한 예금·지출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조 후보자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의 불투명성과 과소비를 집중 질타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날부터 일찌감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분석 결과 조 후보자의 지출내역 중 약 16억 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3년 8개월 동안 총 소비액이 18억3000만 원에 달한다"면서 "매년 5억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비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는 하루 평균 소비금액이 400만 원으로, 보통 사람의 월급에 해당한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예금 증가분과 전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조 후보자 부부의 예금액은 2008년 말~2009년 말 동안 6억1000만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후보자는 전세금 9억5000만 원의 방배동 소재 빌라에서 전세금 12억 원인 반포2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전세금 증가액은 2억5000만 원에 이른다. 별도의 대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1년새 재산이 무려 8억6000만 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조 후보 부부의 소득은 세후 8억1500만 원으로, 1년 동안 부부가 생활비를 단 1원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재산 증가분에 비해 소득이 4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 의원은 "이 부분이 명확히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녀 박모(22) 씨가 YG엔터테인먼트', '현대캐피탈'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모집에 자격 미달이었음에도 합격했다는 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중 기자 zerg@

**기후변화·에너지산업 포럼**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을 주제로 '에너지 테크 인사이트(Energy Tech Insight)'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ETI는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에너지기술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외국서 리콜 땐 국내서도 수거·파기

오늘의 법안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의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비도덕적 판매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추혜선(사진)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거·폐기했을 경우에는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정부에 보고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아와 어린이가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사건으로 북미와 중국 등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국내에서는 동일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이케아 사태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해 국내 소비자들의 알권리도 강화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이케아의 리콜 조치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에 서랍장을 리콜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리콜을 거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어 한국소비자가 '글로벌 호갱'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한 동일제품을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수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1조 넘었다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

### 사업장 4만8000곳, 가입자 21만명
### 운용관리수수료 0.1% 업계 최저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적립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공단의 퇴직연금 현황은 가입 사업장 수 4만8000여 곳, 가입자 21만여 명, 적립금 1조1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7월부터는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약 신고를 대행하는 한편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0년 28.9%에서 2015년 5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5.7%에서 15.9%로 올라섰다. 공단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3월 기준 15.3%(27만3008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사업장은 16.7%(4만5531개소)로 집계됐다.

공단은 퇴직연금 적립금 1조 원 돌파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 위해 이날 울산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0년 후 공단 퇴직연금 사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가입고객 감사 이벤트와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 수만 따진다면 퇴직연금사업자 중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에 적립금 1조 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단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 퇴직연금 현황**
※ 올해 7월 말 기준

| | |
|---|---|
| 가입 사업장 수 | 4만8000여 곳 |
| 가입자 | 21만여 명 |
| 적립금 | 1조144억 원 |

# 해수부, 스리랑카 4개 항구 개발협력 MOU… 국내 기업 참여 기대

### 현지 인프라 사업 교두보 예상

해양수산부는 스리랑카의 다목적 어항 건설 지원을 위해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30일 콜롬보 현지에서 가진 딜립 웨다르치(Dilip Wedaarachchi) 스리랑카 수산 및 수산자원개발부 정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스리랑카에서 요청한 다목적 어항(우다푸와, 마다갈, 찰리, 델프섬) 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올해 안에 체결하고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스리랑카는 오랜 내전(1983~2009년)으로 북부 및 북서부의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돼 아직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빈곤을 퇴치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4월 딜립 웨다르치 정무장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어업 및 대형선박 입출항을 위한 다목적 어항 개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해수부는 MOU 체결 후 스리랑카의 다목적어항 개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스리랑카 측이 우리나라 대외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설계나 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스리랑카는 최근 경제개발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연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스리랑카 정부는 다목적어항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스리랑카의 인프라 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도흔 기자 sogood@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놓고 첨예한 대립

### '게임이용자 알권리' 토론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간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절한 확률 조정으로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앞서 지난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해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민단체 측은 법적 규제로 게임사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는 상품 중에 확률이 포함된 건 확률형 아이템밖에 없다"며 "사행성이 크고 우연적인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계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과소비 억제, 사행성 조장 방지, 게임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등, 세 가지는 입법 목적을 갖는 데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게임을 제한하는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법제화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적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가을 재촉하는 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린 31일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 앞의 수크령 군락 사이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내달 1일 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20~60mm, 그 밖의 지방에는 5~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 대우조선 비리 의혹…뉴스컴과 홍보용역 계약

# 검찰, "민유성 지시 있었다" 진술 확보

〈전 산업은행장〉

### 박수환 대표와 연결고리 추적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으로부터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과의 홍보 용역계약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뉴스컴과 박수환(58) 대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구속된 박 대표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미 박 대표가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산은 임직원을 불러 민 전 행장 지시로 뉴스컴에 용역을 주게 된 경위와 함께 2009년 금호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경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산은이 뉴스컴에 용역을 준 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민 전 행장과 박 대표)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줄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박 대표의 호화 전세기 출장 의혹에 관해 검찰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의 정보 출처가 검찰이 아니냐는 물음에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팀과 관계없는 사항"이라며 "(상부에 보고한 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과 29일 박 대표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2011년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함께 고급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주필은 두번째 폭로 직후 주필 직에서 물러났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대법 "이호진 횡령 혐의 다시 따져보라"

〈전 태광그룹 회장〉

### "범행 저질렀지만 대상 잘못 판단" 1400억대 횡령 재판 파기환송

14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 대상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횡령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직원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사실 중 자료 없이 거래를 반복한 횡령 대상은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하려고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게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사 돈 500억여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등 9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도중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대법원 "산재 아니다" 첫 판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일부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얻은 백혈병이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인지에 관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 정모 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노출된 유해물질과 정도를 따져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을 인용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 롯데家 서미경 씨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1800억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무려 1800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서 씨가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은 5건으로,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1177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신 총괄회장에게서 지난 2007년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 토지의 평가액은 822억 원에 이른다.

또 같은 해 증여받은 경기 오산의 4만7000여㎡ 토지는 82억 원, 강남 신사동 주택은 83억 원선인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다. 서 씨는 딸 신유미(33) 씨와 함께 지배하는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등 두 법인을 통해 서울 삼성동(유기타워)과 반포동(미성빌딩), 동숭동(유니플렉스)에 각각 소재한 빌딩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빌딩의 평가액은 총 688억 원이다. 반포동 빌딩은 서 씨가 2002년 롯데건설에 넘긴 후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원실업을 통해 다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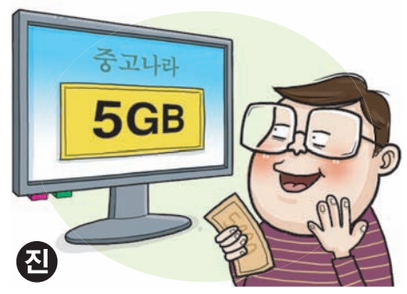
# "데이터 팔아요" 불법매매 극성

#SK텔레콤 이용자인 김모(23·서울 광장동) 씨는 월 제공되는 LTE 데이터를 다 소진하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찾았다. 김 씨는 데이터 판매 게시글을 검색한 뒤, 한 판매자를 골라 6000원을 입금하고 데이터 선물받기 기능으로 2GB 용량을 전달 받았다.

#KT 이용자인 안모(20·경기도 분당) 씨 역시 데이터를 모두 쓴 뒤, 평소 자주 찾는 대형 IT커뮤니티의 중고 거래란을 방문했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던 안 씨는 2만5000원을 계좌로 입금한 뒤 5GB 용량의 데이터쿠폰을 구했다.

이동통신3사가 약관 변경을 통해 개인 간 데이터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사고팔기가 일상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30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는 하루 동안 데이터를 사거나 판다는 게시글이 120여 건 올라왔다. 시간당 5건가량 꾸준히 게시된 셈이다. 거래 가격은 1GB당 3000~5000원 수준을 형성했다. 2GB 용량까지 '데이터 선물하기'가 가능한 SK텔레콤 이용자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




**이통사, 개인 간 매매 금지하지만**
**하루 인터넷 매매 게시글 127건**
**사기 피해 속출… 적발 쉽지않아**
**방관하는 이통사, 책임전가만**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쿠폰 방식으로 데이터 매매가 이뤄졌다.

거래가 많다보니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약속을 받고 입금을 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천 원에서 1만~2만 원 수준의 소액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데이터를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 이통사 약관상 금지하고 있는 것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판매 사기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한 판매자가 수십여 명에게 판매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지속되자, 이통사들은 지난 4월 이동전화 이용 약관에 '데이터 등을 공유·매매·대여의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통사가 데이터 매매를 방관하고 사기 피해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적발하려면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과도한 고객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감해했다. KT 관계자도 "삼성전자 제품을 중고 거래한 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사기 피해를 사업자에게 물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양창균·이지민 기자 yangck@



#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명품 농수산물 발굴 허브 자리매김

창업의 메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 ⑫ 충남 한화

**죽도에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만들어**
**중소벤처 등 생산협력 참여 모델로**
**연구개발 지원 서산솔라단지도 준공**

**지역 특산물에 한화 품질디자인 접목**
**판로 개척하고 주민 소득증대 기여**

**스타트업 해외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한화그룹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월 미래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중소 벤처기업들의 인큐베이팅과 연구활동,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화서산솔라벤처단지를 준공했다. 준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월 충남 홍성군 죽도에 설치한 태양광 융복합 발전시스템 모습. 사진제공 한화그룹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명품 농수산물 발굴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충남혁신센터는 한화그룹과 정부, 지자체가 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참여형 모델로 충남 홍성군 죽도에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을 준공했다. 죽도는 이를 통해 태양광 기반의 클린 에너지를 100% 자급 자족하는 클린 섬으로 거듭났다. 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옥외 광고 보드, 와이파이존, 해충포집기 등 클린 캠핑장을 조성해 '관광 죽도'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화그룹은 이와 함께 서산솔라벤처단지도 준공했다. 서산솔라벤처단지는 태양광 중소벤처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연구활동,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한화는 단지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입했고, 연간 3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테스트 베드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죽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를 포함한 9개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했다. 올해 말까지 총 22개 업체 입주를 목표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충남혁신센터는 입주기업들에 박람회 참가, R&D 및 실증지원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혁신센터의 또 다른 사업은 농수산품 명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다. IT, 디지털, 첨단소재 산업 등에 집중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1차산업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 농수산 특산물에 한화그룹의 품질 디자인 개선, 브랜드이미지 생성, 스토리텔링 능력을 접목, 명품으로 만들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동시에 갤러리아 백화점 아름드리 매장과 갤러리아 63면세점에 우수 농수산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전시장을 설치, 매출 증대를 돕는다. 작년 5월 갤러리아 백화점(천안점) 식품관에도 지역 우수농수산품 전용 판매 공간을 개소해 22개 기업, 86개 품목의 판매를 지원했다. 당시 누적매출 14억 원을 달성했다. 한화그룹과 충남혁신센터는 또 한국관광공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협력해 명품 농수축산품과 연계한 농촌 체험관광마을 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혁신센터는 KTX 천안아산역에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전국 혁신센터의 무역지원 허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화그룹과 충남도, KOTRA, 무역협회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무역지원을 돕는다. '무역존'으로 불리는 이곳을 통해 전국 200여 개 전문 무역상사와 상시로 매칭해 현재까지 10개의 기업에서 4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일궈냈다.

한화는 한화드림플러스센터와 협력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GEP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있는 해외 사업 파트너와 고객을 발굴해 매칭해주고, 매출 계약 성사를 이끌고 있다. GEP 프로그램은 원래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해외(아시아)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충남혁신센터는 창업 공모전을 통한 창업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9월 시작한 '100번가의 톡'이라는 창업공모를 통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약 51개팀(420명)이 참여했다. 한화는 이 중 최종 10개 팀을 선발, 보육기업으로 육성 추진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단순 정책자금 집행 아닌 청년창업 자립 기반 제공 성공사업화 길 열어줄 것"

### 이병우 충남 혁신센터장



"충남혁신센터는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응용 제조품을 개발하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병우〈사진〉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충남혁신센터가 차세대 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가득찬 것을 꿈꾼다.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품이 생산되고, 이를 찾는 기업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것이 이 센터장이 그리는 미래의 충남혁신센터 모습이다.

그는 "미래 전기용 장치와 제품들이 계속 탄생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창업 네트워크 속에서 전문성을 가진 창업기관이자 공공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공작소와 네트워킹 장소를 가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를 위해 우수한 창업자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 센터장은 "많은 젊은이가 막연하게 센터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혁신센터는 정책자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화하는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센터는 창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툴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남혁신센터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충남은 31개 대학에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존재하고,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지역 총생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충남지역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거점으로서 혁신센터가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이노본 '진짜 같은 인공뼈' 첫 개발…연내 수출 가시화

### 충남 혁신센터 성공사례

**작년 제품 출시후 2억7000만원 매출**
**中·印 등 진출위해 현지 샘플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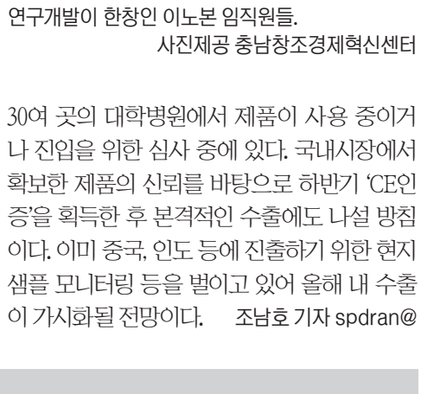
2010년 설립된 이노본은 바이오세라믹 조직제어 원천기술로 다양한 골대체재를 개발하는 인공뼈 전문 벤처기업이다. 특히 2015년 '진짜뼈 같은 인공뼈'로 불리는 인체골 모방 인공뼈 이식재를 최초로 개발해 뼈 이식재로서는 처음으로 'NET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탄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노본이 개발에 성공한 '프레본'은 바이오세라믹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향의대 재생의학 연구팀과 협업해 특허를 획득한 제품으로, 거의 진짜 뼈와 흡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기존 인공뼈는 강도를 높이면 기공률이 낮아지고, 기공을 충분히 확보하면 강도가 낮아져 부서지는 단점이 있었다. 즉 압축 강도와 기공률이 역비례한다는 것. 이노본이 개발한 프레본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서 신생 뼈 재생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출시제품의 포장 문제, 사용의 불편함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간의 투자비용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선뜻 제품개선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충남혁신센터의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노본은 포장 용기 디자인 등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으로 개선했다. 특히 한화그룹의 지원 아래 KOTRA,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구체적인 성과도 이루어 내고 있다.

2015년 첫 제품 출시 후 2억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이노본은 현재 전국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30여 곳의 대학병원에서 제품이 사용 중이거나 진입을 위한 심사 중에 있다. 국내시장에서 확보한 제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반기 'CE인증'을 획득한 후 본격적인 수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미 중국, 인도 등에 진출하기 위한 현지 샘플 모니터링 등을 벌이고 있어 올해 내 수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연구개발이 한창인 이노본 임직원들. 사진제공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에너지 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글로벌 에너지 화학 기업 SK 이노베이션 |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인천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
김기덕

자신QR코드를 스캔하시고
[SK이노베이션X김덕기]
라이브 드로잉을 감상하세요

1. 지구 곳곳에서 **솟은 원유**를 찾아내고

2. 세계적인 **에너지 화학 제품**을 만들고

3. 세계적 기술의 **윤활유와 전기차 배터리**로

4. **수출강국**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올 게 왔다는 채권銀 "한진해운 충격 없다"

**금융권 위험노출액 1조 330억**
**대부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법정관리시 금융리스크 최소화**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진 한진해운의 채권은행들은 이미 대부분의 여신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금융권 2차 충격은 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진해운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가 조선업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조330억 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의 위험노출액이 66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890억 원)·NH농협은행(850억 원)·우리은행(690억 원)·KB국민은행(530억 원)·수출입은행(500억 원)·부산은행(80억 원) 등이다.

제2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다. 요주의는 대출 자산의 7~19%, 고정은 20~49%, 회수의문은 50~99%, 추정손실은 대출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들은 이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등급을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100%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로 처리한다.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부분의 손실을 미리 반영해 둔 상황이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익스포저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은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라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도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설정해 약 90%의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한진해운 여신 건전성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있고, 충당금은 100% 가까이 쌓았다.

다만 하나은행은 여신 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해 절반 이상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람 기자 hura@

## 농협銀 '신속위안화무역송금 서비스' 시행




NH농협은행은 농협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위안화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한 '신속위안화무역송금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위안화무역송금서비스는 국내 유일한 위안화청산은행인 중국 교통은행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후 3시 이전 해외송금 신청 시 중국 내 모든 수취은행에 당일자로 송금되도록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 "수은 역할과 기능을 한눈에" 테마별 성과지표 홈피 게시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은의 역할과 기능을 테마별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테마와 숫자로 읽는 수출입은행'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5개로 이뤄진 테마는 국민경제, 국정과제, 대외무역, 동반성장·대외협력 등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의 4대 역할과 작고 효율적인 기관을 표방하는 수은의 업무생산성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테마별 2~3개로 구성된 13개 지표는 수출, 국내총생산(GDP),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수은의 역할과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박일경 기자 ikpark@

# SPP조선 통영·고성조선소 매각 추진

**채권단, 내달 20일까지 인수의향서… 유일하게 가동중인 사천은 제외**

SPP조선 채권단이 통영조선소와 고성조선소 등 유휴자산 관련 매각공고를 냈다. 삼라마이더스(SM)그룹 등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천조선소는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SPP조선 채권단은 이날 SPP조선 유휴자산 매각공고를 냈다. 인수의향서(LOI) 접수는 다음 달 20일 마감된다.

매각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찰자가 1곳일 경우 매각의 신속성을 위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주간사는 매각대상별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이 맡았다"며 "각 자산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LOI를 접수하는 응찰자가 일괄매각과 별도매각 등의 방식을 함께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통영 및 고성조선소 매각은 삼일회계법인이 주간한다. 이와 함께 플로팅 도크 매각도 함께 진행하지만, 이는 고성조선소와 함께 일괄매각할지, 별도매각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율촌공장 매각의 경우 삼정회계법인이 주간해 진행한다.

SPP조선이 유일하게 가동 중인 사천조선소는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매각 등 관련 이슈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 은행국 검사 끝나니, 준법검사국·소보처서 "우리도 검사합시다"

# 금감원 '실적경쟁'에 금융사 '녹초'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단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 개편이 되레 금융회사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필요한 검사행위 축소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핵심은 기존 금융회사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 검사로 나뉜 것이다.

건전성 검사는 1차 검사와 같다. 서류검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준법검사는 위법 사안에 대한 현장 검사다. 위법 사안인 만큼,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검사를 건전성 검사 위주로 바꿔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원래 당국의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주장이다. 예컨대 건전성 검사 후 위법 사안이 발견돼 준법 검사가 진행되면,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중복 검사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보자보호처가 생기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은 가중됐다.

관련 사안에 대해 소비자분쟁과 관련돼 있다면 소보처에서도 검사가 진행된다. 소보처가 접수한 민원 대부분은 지점과 관계돼 있지만, 본점과 연관성이 큰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소보처가 본점 관련부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은행국의 과거 검사와 겹칠 수 있다.

**"검사부담 줄이자" 조직개편**
**권한 겹치며 되레 밥그릇 싸움**
**실적 쌓을 만한 사건에 '우르르'**
**"최대 4번 중복검사"에 골머리**

본원의 건전성 검사와 준법 검사, 소보원의 건전성과 준법 검사 등 4개의 검사가 겹칠 수 있다.

금융회사 한 임원은 "금감원의 검사 체계가 바뀌고부터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사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검사팀이 꾸려져 현장 대응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건전성 검사 쪽에서 업무를 준법국으로 배분하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부서 간 업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운영되던 기획검사국이 일반검사국에서 일감을 주지 않아 개점휴업이란 오명과 함께 지난해 폐지되기도 했다.

비슷한 문제로 은행 준법검사국과 증권 쪽의 자산운용국이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너무 많은 곳에서 검사권이 부여되다 보니 중복 검사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너도나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달려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일을 떠넘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 이후 소보처와 본원 일반국이 검사영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 내 검사 중복에 대해 조율하는 부서인 기획조정국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검사에 나서도 막상 현장에서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금융회사에 부담을 가진다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오성엘에스티 본입찰에 삼성 협력사 등 최소 2곳 참여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오성엘에스티의 본입찰 결과 삼성 협력업체 등 최소 2곳 이상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오성엘에스티 본입찰에 유효경쟁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논의해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본입찰에는 터치스크린 모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S 기업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엘에스티 매각 주간사인 EY한영 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비입찰을 통해 2곳 이상의 기업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이 본입찰에 그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인수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S사 관계자는 "모든 실사를 마치고 자금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황"이라며 "기업 인수 후 향후 사업 계획 등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오성엘에스티를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대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수주물량을 가져와 관련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자금 조달 능력 등에서 우리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성엘에스티는 태양광 및 반도체검사 장비 등의 사업을 벌여오다 2013년 태양광 시장 악화로 인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지난 2014년 출자전환을 통해 오성엘에스티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산은은 81개 중소·벤처기업을 묶어 한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시종·황윤주 기자 ssj@



# 편의점 잘나가는데… 총수는 남모를 속앓이

## 허연수 사장, GS25 성장세에도 수퍼사업 영업적자 골치
## 홍석조 회장 "BGF리테일 4년내 매출 10조" 골프장 발목

국내 편의점업계를 이끌고 있는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이 불경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으면서도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편의점만 놓고 보면 부러울 게 없지만, GS리테일은 슈퍼마켓 사업의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BGF리테일은 골프장 사업이 전체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의 2분기 매출액은 1조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5% 감소하며 679억 원에 그쳤다. 편의점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각각 20%, 27% 성장했음에도 슈퍼마켓 등 기타 사업에서 영업적자액이 200억 원에 달해 역성장했다. 특히 슈퍼마켓 매출액은 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0억 원 감소하면서 적자전환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편의점을 제외하고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슈퍼마켓 사업의 경우 연간 적자가 확실해지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2분기 GS리테일의 영업이익 감소는 슈퍼마켓 사업의 실적 부진이 주 원인으로, 슈퍼마켓 사업은 하반기에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낮아 연간 영업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바통을 넘겨받은 허 사장은 오너 3세 경영 시대를 밟아가고 있어, 슈퍼사업의 흑자전환이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 2분기 실적 현황**

(단위: 원)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




| GS리테일 | | BGF리테일 |
|---|---|---|
| 1조8500억 (18% 증가) | 매출액 | 1조2725억 (14.6% 증가) |
| 679억 (2.5% 감소) | 영업이익 | 628억 (22.4% 증가) |

BGF리테일은 보광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보광이천 골프장이 골치다. 3년째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곳을 올 2월 인수한다고 밝혔을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편의점과 사업 연관성이 낮아 우려를 표했었다. 홍 회장이 동생인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을 돕기 위한 인수·합병(M&A)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

몇 년째 적자를 내던 이 골프장은 2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지만 매출액이 39억 원, 영업이익이 16억 원을 기록해 투자 대비 실속이 없다는 평가다. 홍 회장이 투자한 돈만 1000억 원을 상회한다. 더욱이 골프장 사업은 김영란법 등의 여파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홍 회장이 선언한 2020년 매출 10조 원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4조334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8.7% 신장했다. 영업이익도 1836억 원으로 47.9% 증가했다. 올 2분기에는 매출액이 1조2725억 원, 영업이익이 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6%, 22.4% 늘었다. 신규 점포 순증은 414개로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20년 매출 10조 원을 외친 홍 회장의 당찬 포부가 현실화하려면 계열사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 LG "20년 보증 '센텀시스템' 유럽 가전시장 공략"

## 에너지 사용량 30% 줄인 냉장고 최초 공개
## 연말까지 주요국에 건조기 등 신제품 출시

LG전자가 핵심부품을 20년 보증하는 '센텀시스템'으로 유럽 프리미엄 가전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 출시한 센텀시스템 세탁기에 이어 센텀시스템 냉장고(사진)와 건조기 등을 잇따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 세탁기를 출시한 LG전자는 다음 달 2일(현지 시간)부터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6'에 △업계 최초 A+++ 대비 에너지 사용량 30%가량 더 줄인 상냉장·하냉동 타입 센텀시스템 냉장고 △인버터 컴프레서 기술 적용 센텀시스템 건조기 등을 첫 공개하고 연내 유럽 주요 국가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센텀시스템은 세탁기 모터, 냉장고 컴프레서 등을 통해 프리미엄 가전의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소음은 낮춘 LG만의 차별화된 혁신 기술이다. LG전자는 센텀시스템을 적용한 세탁기 인버터 DD 모터, 냉장고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업계 최초로 20년간 무상 보증한다. LG전자는 유럽 주요 매장에서 센텀시스템 전용공간을 운영,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센텀시스템 세탁기는 유럽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 A+++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약 60% 줄였다. 고속세탁 시 소음은 67dB로, 유럽에서 판매되는 동급 드럼 세탁기 중 최저 수준이다. 터보워시 기능을 이용하면 6㎏ 세탁물 기준 49분 만에 세탁이 끝나고 물과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제품 대비 각각 17% 줄어든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제품에 기본탑재된 코스 외에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세탁코스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센텀 시스템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고효율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을 통해 A+++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20% 가량 줄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동급 제품 가운데 가장 효율이 높다. 센텀 시스템 양문형 냉장고는 A+++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더 낮췄다. LG전자는 냉장실에 식재료에 맞게 온도와 습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조작부와 외관, 내부에 메탈 느낌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 사장은 "고효율, 내구성 등 가전의 본질에 집중한 센텀 시스템 가전을 앞세워 유럽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 히든챔피언 키운다더니 중견기업연구원은 홀대

## 단기정책 급급… 중장기 플랜 시급

최근 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정책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 발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다각적인 중견기업 정책 인프라 구축부터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 연구기관인 중견기업연구원은 최근 두 달째 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김승일 초대 연구원장은 지난 6월 말 자리를 떠났다.

중견기업연구원은 2년 전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견기업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정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3월에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이다. 그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 주무부처인 중기청과 산업부에서의 연구 수요가 정작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견기업연구원이 지난 1년 4개월(2015년 3월~2016년 7월)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총 27건 중 중기청이 의뢰한 연구는 3건에 불과했고, 산업부는 전무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대·중소기업으로 양분화된 한국의 산업정책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연구 인프라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KT, 고객참여 VR영상 공유서비스 '더 VR'**




KT는 자사 모바일 IPTV 서비스인 올레tv 모바일을 통해 통신3사 최초로 고객이 VR영상을 직접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더 V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비스 출시와 함께 내달 25일까지 'VR 세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고객과 함께하는 VR영상 공모전 △고객 참여를 위한 무비데크 아카데미 VR영상 강의 △VR영상 전문작가와 함께하는 '시네마틱 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KT

# 셀트리온 '램시마' 2분기 유럽 오리지널 시장 40% 삼켰다

## 연말까지 50%까지 대체할 듯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처방받은 유럽 내 환자 수 급증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기준 유럽 내 램시마 누적 처방환자 수 5만8000여 명, 2016년 1분기 말 8만2000여 명에 이어 2분기 말 10만5000여 명의 처방 환자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유럽 내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가면역질환자가 약 26만 명으로 추산됨을 고려하면,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의 40%를 대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는 빅5 마켓으로 불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판매가 시작되면서 램시마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이 같은 폭발적인 점유율 증가가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 펼치는 적극적인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는 올해 유럽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램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존슨앤드존슨사의 '레미케이드'는 세계 시장에서 한 해 98억8500만 달러(약 1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 세계 판매액 기준 3위에 오른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이다. 미국은 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게 되면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인공지능'에 빠진 이통사들

## SKT, AI 스피커 '누구' 공개
## KT도 '기가지니' 올 출시 예정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경쟁을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내놓고 인공지능 시장 선점에 나섰다.

SK텔레콤은 3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수펙스홀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와 전용기기를 출시했다. 2012년 연구에 돌입한 지 4년 만에 내놓은 결실이다.

'누구'를 탑재한 첫 번째 전용 스마트기기는 원통형 디자인의 가정용 스피커다. 음성 인식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기기 상단에 배치했다.

'누구'는 고객과의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플랫폼과 음성 입출력이 가능한 전용 스마트기기로 구성됐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및 스마트홈 등과 연동해 △조명·제습기·플러그·TV 등 가전기기 제어 △음악 추천 및 자동 재생 △날씨·일정 등 정보 안내 △스마트폰 위치 찾기 등 편의를 제공한다.

박일환 SK텔레콤 단장은 "누구를 고객 일상과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당사 생활가치 플랫폼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핵심 접점으로 성장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31일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와 전용기기를 공개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경쟁사인 KT도 연내 인공지능 스피커인 '기가지니(GIGA ginie)'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가지니'는 사용자가 기기와 대화를 주고 받으며 정보를 확인하거나, 집 안의 각종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스피커 형태의 홈비서 시스템이다. 700만 곡 이상의 음원 서비스가 가능한 KT뮤직의 '지니'와 가정용 사물인터넷 제어 서비스가 주 기능이다. 향후 택시·배달 등 각종 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기가지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음성인식 기술과 KT CS의 콜센터 데이터베이스, KT 음원서비스 '지니'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KT 관계자는 "공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nova@

# 삼성SDI, 헝가리에 車배터리 공장

## 4000억 들여 PDP공장 재건축… 울산·中시안과 '3각 생산체제'

삼성SDI가 유럽 배터리 생산 거점을 헝가리로 최종 확정,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유럽거점 확보로 삼성SDI는 울산, 중국 시안과 함께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삼성SDI는 31일 헝가리 정부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약 4000억 원을 투자,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생산량은 전기차(EV) 5만 대에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SDI 헝가리 공장은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25㎞ 떨어진 괴드시(市)에 약 10만 평(33만㎡) 규모로 기존 PDP 생산 공장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특히 기존의 공장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건축 기간과 비용을 절감, 수익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럽 자동차업체들의 생산기지가 헝가리 인근에 몰려 있어 이번 공장 건설로 물류비 절감은 물론 고객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지난해 삼성SDI가 인수한 배터리 팩 생산거점인 SDIBS와 시너지를 통해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30일 헝가리 정부청사에서 정세웅 삼성SDI 중대형사업부장·뻬떼르 시야르또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삼성SDI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계획을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SDI

삼성SDI 측은 "유럽 고객들의 다양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 스프리스, JYP 손잡고 '트와이스' 브랜드 론칭

## 김남호 대표 "올해 매출 목표 100억… 내년 中시장 진출"

신발 회사인 스프리스(SPRIS)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10대(틴에이저)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스프리스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4월 관계회사 강남벤쳐스(이하 GV)를 설립하고,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E)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트와이스(TWICE by SPRIS)' 브랜드를 30일 선보였다.

김남호 GV 대표는 론칭 행사에서 "올해 매출 목표는 100억 원이며 내년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GV는 JYPE와 제휴를 통해 JYPE 소속 가수인 트와이스를 신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스프리스와 레스모아는 트와이스 상품의 공식 유통사로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된다. 스프리스는 모바일 페이지를 별도 개설, 10대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한다.




왼쪽부터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남호 GV대표(가운데)가 론칭쇼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강남벤쳐스

김 대표는 "다음 달 말 트와이스 멤버 채영이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한정판 제품 출시에 이어 12월 개최되는 엠넷아시아뮤직어워드와 맞춰 신제품을 내놓고 중국 진출을 꾀할 것"이라며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 시장 진출이 중장기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

# 건설사 수익 줄라 '쉬쉬'… '마이너스 옵션' 있으나마나




**벽지·바닥 등 기본 마감재 입주자 선택**
**분양가 5% 저렴…양도세 감면 효과도**
**건설사 공사불편 등 이유로 홍보 안해**
**'발코니 확장' 선택 못하는 불이익 주기도**

최근 분양 시장의 열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공사 불편과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일부 단지는 발코니 확장 등을 의무 사항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2007년 도입된 마이너스 옵션제도는 기존 마감재가 획일적으로 시공되지 않아 통상 분양가보다 5% 정도 낮은 가격에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세금 절약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알고 있는 수요자가 거의 없다. 건설사들이 공사 불편과 수익 감소를 우려해 이를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견본주택에서 배포하는 홍보책자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옵션 항목이 빠져 있다. 반면 유료 항목인 발코니 확장비나 빌트인 가구, 에어컨 등은 상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설계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해 두고 설계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의 불편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 돼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니다"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공사 관리에 번거로움이 늘어나서 건설사들은 권하지 않는 만큼 계약자들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은 대부분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마이너스 옵션제는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는 반쪽 자리에 불과하다"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세분화해 벽지, 욕조, 내장재 등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 재건축·재개발 공동시행 때 시공사 선정시기 싸고 논란

**서울시 자체지침 통해 '건축 심의 이후'**
**일부 조합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미뤄**
**건설사 "사업 늦춰진다" 우려 목소리에**
**市선 "공동시행 사업자 적어 영향 미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조합이 공동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선정 시기를 놓고 서울시와 건설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1일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사 선정 시기다. 당초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체지침을 통해 공동사업 시행자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하면서 덩달아 시공사 선정 시기 역시 뒤로 늦춰진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조합원 동의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생략되고 협의와 동시에 시공사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사의 선정시기가 건축심의 이후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이 정해지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물밑작업을 지속해오던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공사 선정 시기 지연으로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올 6월 기준 347개로 이 중 150여개 단지가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애초에 도정법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할 수 있게 한 점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이란 이름으로 시공사 선정이 늦춰지면서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설립 인가가 임박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1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 등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나 시간상으로는 3~4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만큼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설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이 드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지연시키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국한되지만 이들 단지가 공동사업 시행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 재건축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한 단지는 20개에 불과하다.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전체 단지의 10%에 그친다. 즉 20여개 재건축 단지 중 공동사업 시행자 이자 시공사 선정의 지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단지는 드물 것이란 주장이다.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 지역 조합들 중에는 공동사업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공동사업 시행할 경우 수익을 시공사와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 SH공사-서울시립대, '주거복지 향상' 손잡았다

**청년 주거문제 등 정책연구 업무 협약**



SH공사와 서울시립대학교 복지사회연구센터가 서울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SH공사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1일 SH공사는 서울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복지사회연구센터와 전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 노인인구 증가, 1인 여성가구 증대, 청년 주거문제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종언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그동안 공사의 노력이 공공임대 발전에 국한돼 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시 주택정책 및 시민주거복지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력으로 주거복지 신규 추진사업, 해외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비교 등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연구에 공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 추천 경매 물건

| 용도 | 소재지 | 건물(㎡) | 감정가(원) | 최저 입찰가(원) | 감정가 대비 | 입찰 및 개찰일 | 경매계 | 사건번호 |
|---|---|---|---|---|---|---|---|---|
| 주상복합(아파트) |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8 케어빌 10층 1002호 | 85 | 303,000,000 | 242,400,000 | 80% | 10월 4일 | 남부4 | 2016-2861 |
| 아파트 | 서울 강남구 자곡동 611 래미안강남힐즈 618동 9층 901호 | 102 | 1,200,000,000 | 960,000,000 | 80% | 10월 6일 | 중앙11 | 2016-3707 |
| 주상복합(아파트)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 10층 101-1003호 | 115 | 563,000,000 | 450,400,000 | 80% | 10월 10일 | 동부4 | 2015-12509 |
| 아파트 |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4 ,227-44 미랜드퀸 3층 302호 | 84 | 405,000,000 | 324,000,000 | 80% | 10월 10일 | 동부6 | 2016-503 |
| 아파트 | 서울 광진구 자양동 672 한솔리베르아파트 101동 3층 303호 | 83 | 480,000,000 | 384,000,000 | 80% | 10월 10일 | 동부6 | 2016-50218 |
| 아파트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5-9 성호샤인힐즈 141동 6층 601호 | 85 | 325,000,000 | 227,500,000 | 70% | 10월 5일 | 수원9 | 2016-4722 |
| 아파트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17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503동 14층 1402호 | 85 | 300,000,000 | 210,000,000 | 70% | 10월 6일 | 수원4 | 2016-4852 |
| 아파트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4 푸른마을4단지 403동 8층 803호 | 93 | 270,000,000 | 189,000,000 | 70% | 10월 5일 | 고양12 | 2016-3184 |
| 아파트 |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8-1 ,254-14,259-6 롯데효성 6동 4층 405호 | 53 | 130,000,000 | 91,000,000 | 70% | 10월 4일 | 인천26 | 2016-2491 |
| 아파트 | 인천 동구 송현동 6-26 송현주공 103동 12층 1205호 | 35 | 80,000,000 | 56,000,000 | 70% | 10월 4일 | 인천22 | 2016-15305 |

※자료제공: 지지옥션 www.ggi.co.kr



◇서울 강남구 자곡동 611 래미안강남힐즈 = 618동 9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4년 6월 준공한 20개동 1020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101.94㎡,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IC가 단지에서 5분 거리에 있다. 물건 인근으로 대모산(293m), 세곡동 주민센터, 강남공공주택지구, 헌인릉, 은곡마을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자곡초, 세명초, 율현초, 세곡중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12억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9억6000만 원이다. 입찰은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1계. 2016-3707.

www.dongsung-pharm.co.kr

동성제약

지금은 화이트 타임!

"밤 10시부터 랑스크림하세요"



멜라닌 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를 가장 잘 아는 화이트닝

동성 랑스크림

동성 랑스크림은 나날이 쌓여가는 세월의 흔적을 멜라닌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돌려드립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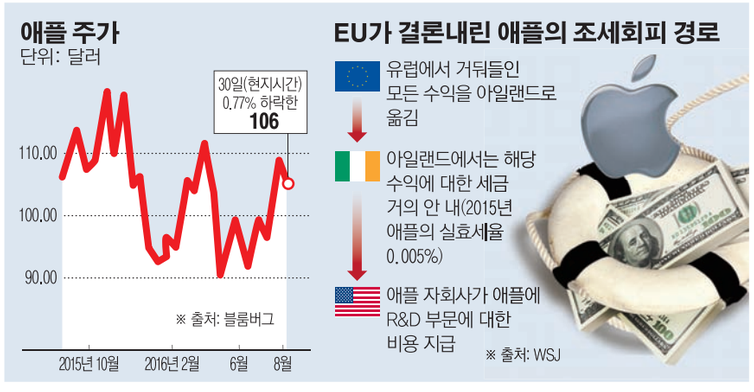
■ 제품 구입 및 문의 : 080 020 2500 I www.dseshop.co.kr I www.ilovenature.co.kr



# EU '애플 추징'에 반기 든 아일랜드 왜?

## 애플 사상최대 세금폭탄

### EC, '불법감면' 130억 유로 철퇴
### 아일랜드, 기업 엑소더스 우려
### "애플에만 특혜 준 것 아냐…
### 회원국 세정 권한 침해" 반박
### EU 사법재판소에 항소 추진




유럽연합(EU)의 애플에 대한 세금 철퇴에 아일랜드가 반기를 들었다. 사실상 조세 회피를 둘러싼 EU와 애플의 신경전이 EU와 아일랜드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EU 집행위원회(EC)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 2200억원)의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우대해줬다며 이를 추징할 것을 결정했다. EU는 회원국이 감세조치 등을 통한 특정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와 애플이 이를 어겼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C는 이날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아일랜드가 다른 기업보다 애플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불법 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손꼽힌다. 법인세율이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미국(최고 35%)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EC는 지난 3년간 조사 결과 애플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 특별 혜택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이 적용받은 실질 세율은 2003년은 1%에서 2014년에는 0.005%까지 떨어졌다고 EC는 지적했다.

애플이 맞은 벌금 철퇴에 당사자인 애플보다 더 발끈한 것은 아일랜드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날 EC의 결정을 거부하며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애플에만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EC가 회원국 고유의 세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항소 방침에 대해 "아일랜드의 세제가 온전하다는 점을 방어하고 기업들에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한 EU 정부 지원 규정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유럽 법인을 유치해왔던 아일랜드로서는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로 약 1000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유럽 법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EC의 이번 결정으로 불안감을 느낀 다국적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별다른 고유의 이윤창출 산업을 가지지 못한 아일랜드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日, 모바일 결제서비스 격전지로

### 내달 '아이폰7' IC칩 내장 출시
### 애플페이 일본 상륙 소문 돌자
### 구글, 미쓰비시銀 손잡고 서비스



구글 안드로이드페이가 일본에 도입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5월 28일(현지시간) 열린 구글 I/O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한 참가자가 안드로이드페이를 시험 사용하고 있다. 블룸버그

일본이 모바일 결제서비스 업계의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애플페이의 일본 상륙을 앞두고 구글 안드로이드페이가 선수를 치면서 현지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구글은 일본 최대 금융그룹 미쓰비시 UFJ파이낸셜그룹(MUFG)과 손잡고 일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 안드로이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JR동일본의 IC 교통승차권 '스이카'와 라쿠텐의 선불식 전자화폐 '에디' 등이 널리 보급됐으나 이용은 국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세계적인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상륙하면서 일본 소비자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드로이드페이 도입은 애플이 애플페이의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신문은 26일 애플이 다음 달 공개할 차기 아이폰, 이른바 '아이폰7'에 일본 IC칩 규격인 소니 펠리카 IC칩을 내장해 애플페이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드로이드페이는 지난해 가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4.4 이후 버전의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에 대응하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이미 이런 단말기는 일본에서 연간 1000만 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피셔 "美 완전고용에 가까워졌다"

### 잭슨홀 심포지엄 이어 '매파' 발언
### 금리인상 시점 직접적 언급은 꺼려
### 8월 고용보고서에 관심 집중될 듯



스탠리 피셔〈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연일 '매파'적 발언으로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쐐기를 박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셔 부의장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시장 회복을 언급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리 인상 시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은행의 작업은 끝나지 않는다. (금리 인상의 성격이) 한 번 올리고 끝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완전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일각의 비관론적 시각에 피셔 부의장은 "그 문제의 대부분은 생산성 둔화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 민간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은 결국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 부문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낙관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할 8월 고용보고서에 집중될 전망이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9월 금리인상 관측이 더욱 힘을 받게 된다.

연준은 9월 20~21일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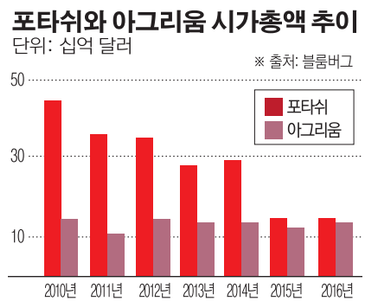
## "예비 대통령님 사인해주세요"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맨 오른쪽)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사가포낵의 한 가정집에서 열린 모금 행사 후 이웃 소녀들과 이야기하며 노트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 논란이 된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보고서가 이르면 31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고 있다. 미국 NBC뉴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클린턴이 48%로 트럼프를 6%포인트 차로 앞섰다. 사가포낵/AP연합뉴스

# 포타쉬·아그리움 합병 추진 '비료공룡' 탄생하나

### 가격 하락에 몸집 키우기 나서
### 시총 280억 달러 농화학산업 최대




캐나다 비료업체 포타쉬 코퍼레이션 오브 사스캐치완(이하 포타쉬)이 경쟁업체인 아그리움과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그로 인해 비료 가격이 떨어지자 몸집 키우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합병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아직 어떤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양사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합병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이에 이르면 다음 주 합병 관련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사 합병이 성사되면 시가총액 280억 달러가 넘는 비료업계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소식통은 포타쉬의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 정도로 아그리움의 130억 달러보다 많은 편이지만 이번 합병은 '동등 합병(merger of equals)'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합병 추진 소식에 포타쉬 주가는 13% 폭등했으며 아그리움 주가도 7% 뛰었다. 모자이크와 인프레피드포타쉬 등 비료업계 주가도 덩달아 들썩였다. 두 회사의 합병 이후 비료업계에 인수·합병(M&A)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최근 비료업계는 과잉생산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시아 생산업체를 포함한 공급 카르텔이 와해하면서 핵심 시장인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비료가격이 50% 넘게 급락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㊾ 유닉스 UNIX

# ‘기술만이 살길’ 38년 철학 세계 3대 드라이어 명가로




**유닉스 연혁**

| 1978 | 1980 | 1990 | 2004~2005 | 2007 | 2010 | 2011 | 2013 | 2014 | 2015 |
|---|---|---|---|---|---|---|---|---|---|
| 유닉스전자 창립 | 일본 샤프에 헤어 드라이어 수출 | 최초의 음이온 드라이어 출시 | 미국 헤어디자이너가 선정한 ‘베스트오브베스트 이미용기기’ 선정 | 무역협회의 날 ‘5000만 달러 수출의 탑’과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 선정 ‘GFK Asia No.1 BRAND AWARD’ 이미용가전 부문 수상 |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 선정 ‘GFK Asia No.1 BRAND AWARD’ 헤어 드라이어 및 스타일러 부문 수상 | ‘테이크아웃’ 시리즈 출시 | ‘테이크아웃’ 시리즈 대만 진출 | ‘테이크아웃’ 시리즈 중국 진출 |

**1994년 세계 첫 음이온 드라이어 시장 점유율 60% 넘어서며 히트**

**연구개발 올인 국내외 76건 특허 혁신제품 쏟아내며 트렌드 주도**

**잇츠매직·테이크아웃 시리즈 계기 낡은 이미지 벗고 젊은층에 어필**

국내 이미용산업이 발전하기 전인 1978년, 이충구 유닉스전자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헤어 기기에 있어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던 일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일본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한 끝에 1980년 일본 샤프에 헤어 드라이어 300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닉스전자는 이를 시작으로 현재 3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창조적 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집념은 유닉스를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이미용기기 시장의 선두자리에 있게 했으며, 세계 3대 헤어 드라이어 기업으로 등극시켰다.

이 회장은 1978년 직원 5명과 자본금 1000만원으로 유닉스전자를 설립했다. 당시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던 헤어 드라이어에 브러시가 달린 ‘쿠루쿠루’를 들여와 판매하던 이 회장은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금형 공장을 찾아 다니며 제품을 만들었다. 숱한 날들을 제품 개발에 매달린 끝에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국산 최초의 헤어컬 ‘UN-100’이 탄생하게 됐다.

유닉스전자는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사명 하에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헤어 드라이어의 원류로 통하던 일본 시장을 공략, 당시 세계적 가전 명가로 군림하던 샤프에 제품을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2004년과 2005년에는 미국 7만5000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선정한 ‘베스트오브베스트(Best of Best)’ 이미용기기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시장서도 인정받았다.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은 계속돼 2007년 ‘5000만 달러 수출의 탑’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GFK는 유닉스전자 제품을 2년 연속 ‘GFK Asia No.1 BRAND AWARD’로 선정했다. 내친김에 미국 뉴욕지사 설립 등 글로벌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과는 대성공. 유닉스전자는 세계 3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미국 콘에어, 프랑스 파룩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3대 헤어 드라이어 기업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세계 3대 헤어 드라이어 기업으로 우뚝 = 창립 이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품 문제로 전량을 리콜한 적도 두 번이나 있다. 유닉스전자의 첫 시작을 함께했던 투자자 사토라이트와의 이별 등도 고난의 과정이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유닉스전자가 세계 3대 헤어 드라이어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품질에는 타협이 없다’는 이 회장의 경영철학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유닉스전자는 1994년 고전압 방전 작용을 이용한 ‘음이온 드라이어’를 처음 선보였다. ‘음이온 드라이어’는 세계 헤어 드라이어 역사에 음이온 기능을 부여한 최초의 드라이어다. 출시 1년 만에 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며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닉스전자를 헤어 드라이어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유닉스전자의 연구개발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나노’와 ‘3D 에어 스핀’의 접목을 들 수 있다. 나노 기술이 접목된 헤어 드라이어는 음이온과 공기 중의 수분을 나노 입자 형태로 공급해 두피와 모발에 수분을 주고, 모발과 두피의 푸석거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3D 에어 스핀’은 유닉스전자가 자체 개발한 노즐로 상하좌우 360도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회오리 바람을 형성, 모근부터 모발 끝까지 균등한 풍속으로 바람이 분사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건조 시간은 감소하고 볼륨감을 더해 더욱 건강하고 윤기나는 모발 관리가 가능하다.

◇끊임없는 신제품 출시로 트렌드 주도 = 유닉스전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음이온 드라이어, 전자파 차단 등 국내외 76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성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하며 업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시작은 2005년이다. 당시 유닉스전자는 기존의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젊은 감각을 더하기 위한 디자인 연구가 한창이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이 꽃, 나비, 10대 소녀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를 도입한 ‘잇츠매직’ 시리즈다. 제품 출시 초반 호불호가 있긴 했으나, 출시 한 달 만에 3만여 개를 팔아 치우며 노후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성공했다.

2013년 유닉스전자는 이미용기기의 미니버전인 ‘테이크아웃’을 출시하며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도로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 제품은 10~20대 여성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스타일링을 원한다는 니즈를 정확히 읽은 후 출시한 라인답게 무서운 기세로 인기몰이를 했다. 2014년 대만, 2015년 중국에 진출하며 중화권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테이크아웃은 요우커들이 한국에 가면 꼭 사야 할 쇼핑 아이템 목록에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올랐다. 올리브영이 테이크아웃을 중국 관광객의 대표 쇼핑 아이템으로 꼽았을 정도다. 올리브영 등 중국 관광객과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통채널에 입점한 것이 ‘신의 한 수’였던 셈이다. 이후 남성 전용 그루밍 제품 ‘테이크아웃 가이즈’, 제모기 클렌저 등으로 구성된 ‘테이크아웃 뷰티’를 추가적으로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 나노 써모케어 3D 에어 스핀



‘나노 드라이어’에 유닉스전자가 자체 개발한 3D 에어 스핀 노즐이 적용된 제품.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빠른 건조가 가능한 자동 온도 케어 모드(T-care)로, 두피 트러블 예방이 가능하다. 나노 수분 및 음이온 발생으로 정전기와 먼지 흡착을 줄여주고, 모공을 청결하게 유지해준다.

### 3D 에어 스핀



유닉스전자가 자체 개발한 3D 에어 스핀 노즐과 강력한 바람을 구현하는 UHDC 모터를 장착해 건조시간을 감소시키고 볼륨감 형성을 돕는다. 쾌속 건조, 두피 건강, 수분 보호, 컬링 유지, 모발 케어 등의 효과가 있다. 풍온 및 풍속 버튼, 터보 스위치를 장착해 모발 상태에 따른 6가지 모드로 선택 가능하다.

### 테이크아웃 시리즈



테이크아웃 시리즈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감각적이고 귀여운 디자인과 편의성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유닉스전자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휴대가 간편한 초소형·초경량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는 물론 요우커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다. 휴대가 간편한 작은 부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행 및 출장 중에도 다양하고 완벽한 헤어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미니 헤어 스타일링 기기 ‘테이크아웃 헤어’로 시작해 그루밍 족을 위한 ‘테이크아웃 가이즈’, 셀프 뷰티족을 위한 페이스 및 바디용 미니 뷰티 아이템 ‘테이크아웃 뷰티’까지 선보여 10~20대 여성 소비자들은 물론 남성 소비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 :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국내산 메밀

재료가 정직해야 맛도 정직합니다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품평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상’ 수상
www.bongpyung.com

국내산 메밀을 원료로 정직하게 생산하여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를 올리겠다는 일념,
(주)봉평농원의 이유있는 20년 고집입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소용 제품




상품 품목 : **부침류** : 메밀부침가루, 찰수수부침가루, 찰수수부꾸미가루, 감자부침가루, 감자수제비가루, 메밀막국수가루, 메밀가루. **면류** : 메밀국수, 메밀막국수, 메밀비빔막국수, 메밀소바, 메밀칼국수, 찰수수국수, 메밀냉면, 메밀비빔냉면. **기타** : 메밀미싯가루, 십곡미싯가루, 봉평촌미싯가루, 메밀쌀, 메밀차, 통메밀차

전국 대리점 모집!! ☎031-323-005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등길 18-10 Tel. 031. 323. 0052 / 033. 333. 8942 Fax. 031. 323. 0473 [주]봉평농원

### 예탁원, 인도네시아에 펀드플랫폼 첫 수출

# 유재훈 사장 "글로벌화 디딤돌…금융개발 협력 모범"

**펀드업무 자동화 'S인베스트' 개통**
**컨설팅~개발 일괄공정방식 수주**
**55억에 계약…수익 다변화 의미**

**데위 인니사장 "펀드시장 발전 계기"**
**태국 등 동남아 수출 탄력 기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펀드 플랫폼 'S-인베스트' 개통 기념식에 참석한 프리데리카 데위(앞줄 왼쪽 네번째) 인도네시아 예탁결제원 사장, 누르하이디(앞줄 왼쪽 다섯번째) 인도네시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재훈(앞줄 왼쪽 여섯번째) 예탁결제원 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개발 협력 분야에서 제대로 된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인도네시아 펀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30일 예탁결제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다 증권거래소(IDX)에서 펀드 플랫폼 'S-인베스트(INVEST)' 개통식을 개최했다.

S-인베스트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펀드 플랫폼인 펀드넷(FundNet)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펀드 설정·환매·전환 주문처리, 펀드 배당·청산 업무처리, 주식·채권 결제지시 등 펀드 업무에 대한 공통 정보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펀드판매사 40개사, 자산운용사 79개사, 보관기관 16개사, 증권회사 4개사, 금융감독기관 등 인도네시아 펀드시장 참가자 전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각종 펀드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S-인베스트 구축으로 펀드 업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데리카 데위 인도네시아 예탁결제원(KSEI) 사장은 "그동안 펀드 업무는 수작업으로 처리돼 오류가 많았다"며 "이번 펀드 플랫폼 구축으로 전체 자본시장의 1%에 불과한 펀드 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인베스트 구축은 예탁결제원에도 중요한 의미다. S-인베스트는 예탁결제원이 컨설팅, 시스템 분석·설계에서 개발까지 일괄공정(Turnkey) 방식으로 수주한 첫 해외사업이다. 계약금액은 55억원(460만 달러)으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11억8000만 원 규모다. 유재훈 사장은 "해외사업이 공익성·원조성이 아닌 수익성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며 "인도네시아 펀드 플랫폼의 성공적인 수출은 수익구조 다변화와 글로벌화의 디딤돌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인도네시아 예탁결제원과는 전자투표시스템 등 추가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인프라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태국과도 펀드 플랫폼 구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이명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총영사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개발 자금 조달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장성이 높은 시장의 금융 인프라를 선점했다는 것은 의미를 둘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법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은 4.9%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5.3%로 보고 있다. 자카르타종합지수(JIC)는 2003년 이후 12배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카르타종합지수 수익률은 8.5%를 기록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김미정 기자 mjk@




지난 4월 GS리테일과 파트너사 임직원이 화합을 다지는 유어스 데이를 진행했다.

### 중소 파트너사·가맹점 추석 자금압박 없게~

# GS리테일, 1500억원 조기지급한다

GS리테일은 올해 추석을 맞아 가맹 경영주와 중소 파트너사에 총 1500억 원의 정산금과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GS리테일은 일정상 가장 앞당길 수 있는 내달 9일과 13일 정산금과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중소 파트너사는 기존보다 7일, 가맹 경영주는 3일 앞당겨 대금(정산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GS리테일은 중소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평소에도 월 단위 대금 지급이 아닌 10일 단위 100%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명절을 맞아 지급 일정을 더 앞당겼다. GS리테일은 GS25와 GS슈퍼마켓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 파트너사들이 평소보다 2~3배 많은 명절 상품 거래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 조기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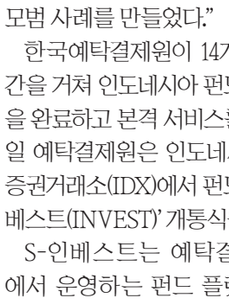
이외에도 GS리테일은 우리은행과 손잡고 2000억 원의 상생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의 고충과 의견을 언제든지 개진할 수 있도록 '정도경영 목소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공정거래 문화의 체질화를 통해 파트너사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본부와 가맹 경영주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경영주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경영주와 근무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 마련 등 다양한 상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조수미, 창원에 예술학교 세운다

# 글로벌 사모펀드 KKR, LG맨 임형석 전무 영입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모 고향인 창원시에 예술학교를 세운다.

창원시는 31일 소프라노 조수미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시정시정회의실에서 예술학교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 밝혔다. 조 씨가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세우는 예술학교에 창원시는 행정 및 재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 씨 측이 재단을 먼저 만든 뒤 예술학교를 설립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협약식에 이어 조 씨를 명예 문화대사로 위촉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국 신규투자 대폭 늘리기로**
**글로벌시장서 경쟁 잠재력 커**



글로벌 3대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서울사무소가 31일 LG전자 출신 임형석〈사진〉 전무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임형석 전무는 박정호 상무와 함께 KKR의 한국 내 신규 투자기회 발굴을 대폭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셉 배(Joseph Y. Bae) KKR 아시아 총괄대표는 "한국은 KKR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를 고려해 이번에 한국 팀을 확대 개편하게 됐다"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KKR는 경영권 투자와 소수지분 투자를 가리지 않고 잠재력 있는 한국 기업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무는 기업 경영 및 컨설팅 부문에서 23년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그는 최근까지 영국 런던에서 한국 투자자 및 기업들을 위한 크로스보더(cross-border) 투자 솔루션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문업체인 컴파스(Compass LKL)의 설립 파트너를 역임한 바 있다.

LG전자에 재직하며 서울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 영국 및 아일랜드 법인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유럽 총괄 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거쳤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서 15년간 재직하며 서울사무소 파트너를 역임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 에이프릴, 서울시 친환경급식 홍보대사로



걸그룹 에이프릴〈사진〉이 31일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박원순 시장이 에이프릴에게 위촉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에이프릴 멤버 일부가 2011년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세대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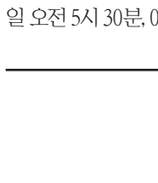
## 문소리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 참가



제7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31일(현지시간)부터 내달 10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 일대에서 열린다. 우리 영화 '밀정'과 '그물' 등이 초청받은 가운데 배우 문소리〈사진〉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혁신적 작품이 소개되는 오리종티 섹션에 우리 영화가 진출했다. 한국·이탈리아 합작 영화로, 한국 청소년이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겪게 되는 갈등을 그린 '굿 뉴스'다. 문소리는 오리종티 섹션의 심사위원을 맡는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최상태 전 서울경제 편집국장 별세



최상태 전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 최 전 국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에 입사, 복간 서울경제신문 감사와 편집국장, 한국일보 홍보담당 상무, 한국전기신문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9월 1일 오전 7시 30분이며, 장지는 전남 담양군 선영이다. 02-2258-5940 김의중 기자 zerg@

## 부음

▲**김선돈**(6·25 참전용사)씨 별세, **형준**(삼성전자 부장)·**혜원**(미국 거주)씨 부친상 =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7시, 02-3410-6919

▲**조영래**(울산 강서병원장)·**승우**(미래에셋대우 대구WM 2지점장)씨 부친상 = 30일, 대구 동산의료원, 발인 9월 1일 오전 7시 30분, 053-250-8141

▲**최지상**(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 이영호 대표, 환경대상서 '온실가스 감축' 대상

〈롯데푸드〉

**태양열 집열시스템 도입 등 노력**



이영호(왼쪽) 롯데푸드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환경대상 온실가스 감축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푸드가 29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환경대상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 기관, 개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2005년 시작해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행사다.

롯데푸드는 환경 친화적 유지정제설비와 태양열 집열 시스템, 폐열 회수 설비 등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롯데푸드는 다양한 환경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기 모터 대신 스팀 사용 설비를 확대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규 폐수 처리 설비를 도입해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환경관리 실행을 인정받아 천안공장은 2011년 7월 충청남도로부터 대기·폐수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영호 롯데푸드 대표이사는 "환경보호는 오늘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 가치"라며 "롯데푸드는 앞으로도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은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다방면에서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하고 8개 부처(환경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가 후원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 인사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장 김경태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사회적기업과장 이성룡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강운경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김연준 △감사담당관 김대현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성환 △행정법제과장 원종욱 △법제총괄과장 윤상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정홍진 △의정기록1과장 고경효 △국회사무처 이경균 ◇**부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김병천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균 △의정종합지원센터장 김병주 △사법법제과장 박철호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장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대현 △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한석현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동찬 △국회사무처 장영복 ◇**서기관 승진** △의안과 김병관 △관리과 김정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종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법제관 정정일 △인사과 홍정 △의정기록1과 손숙자 △의정기록2과 오경애 △설비과 김승갑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박용학 ◇서기관 전보 △의회방호담당관 노형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정유진 △의안과장 구현우 △법제연구과장 김준기 △행정법무담당관 김용우 △미디어담당관 김현중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나아정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묵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윤희 예승우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 △아시아태평양과장 최은규 △의정기록2과장 안기철 △비상계획담당관 이강봉 △의회경호담당관 최오호 △행정법제과 법제관 권아영 △기획예산담당관실 박민호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박철 △운영지원과 이상곤 △법제연구과 법제관이현경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동찬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익두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한노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국회사무처 오세일 장태성 이재윤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협력담당관 윤동준 △법안비용추계3과장 이선주 △행정예산분석과장 박혜진 △법안비용추계2과장 김성완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민병찬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관 조효정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정원철 △법안비용추계1과 예산분석관 김진태 ◇**서기관 전보**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선웅 △국회예산정책처 김려진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총무담당관 여영준 △국토해양팀장 이수기 ◇**서기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최지현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정미야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김재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최정배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정연우 △정보고객정책과장 김기범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이인수 △특허심사제도과장 강흠정

◆**홍익대** △디자인콘텐츠대학원장 김주연 △문화정보정책대학원장 겸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장 이정기 △건축대학장 민현준 △경제학부장 겸 경제연구소장 성명재 △미술대학장 이한순 △교학처장 겸 세종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 양성철 △문화예술평생교육원장 김호연 △문정도서관장 겸 평생교육원장 심수만 △세종캠퍼스 취업진로지원센터 소장 김희산 △기획처 부처장 겸 산학협력단(서울) 부단장 겸 서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소장 나동규 △입학관리본부 부본부장 겸 입학사정관실장 겸 교수입학사정관 김준엽 △대학원 교학부장 허서원 △문화정보정책대학원 교학부장 겸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교학부장 김병서 △자율전공·국제학생지원본부장 겸 서울캠퍼스 자율전공지원실장 하윤경 △세종캠퍼스 국제학생지원실장 이용진

◆**한림대학교 의료원** ◇**춘천성심병원** △병원장 이재준 △진료부원장 이창률 △기획실장 서정열 △수련교육부장 손종희 ◇**강남성심병원** △기획실장 김진배 △수련교육부장 이동진

◆**인제대학교 백병원** △백중앙의료원장 김홍주 ◇**서울백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 김우경 ◇**상계백병원** △원장 조용균 △진료부원장 고경수 ◇**일산백병원** △수술실장 김경태 △응급실장 신동운 △임상연구센터장 양윤준 △심혈관센터장 이성윤

◆**KBS** ◇**본사**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소장 이은수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제주간 이동채 △제작본부 TV프로덕션2담당 강석훈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소 방송문화연구부장 김성모 △윤리경영추진단장 윤용호 ◇**지역** △부산방송총국장 정은창 △대구방송총국장 이현주 △춘천방송총국장 이재필 △제주방송총국장 홍혜경 △울산방송국장 조재익 △진주방송국장 한영남 △안동방송국장 고영산 △순천방송국장 김종명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 서울 25시, 夜

## 제3화 누들월드 ㉒

"내 말은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잖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전무 전결로 처리하면 되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삼양빌딩을 인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박통달은 일어서서 가볍게 고개를 조아렸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삼양빌딩을 인수하겠다는 천일만의 마음이 행여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앞으로는 언론에 보도자료 뿌리는 건은 무조건 보고하도록 해요."

천일만은 사과를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당장 오늘이라도 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은 좋지 않았다.

천일만의 사무실에서 나온 조혜정은 곧장 박통달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통달이 조혜정을 향해 돌아섰다.

"자!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열리는 건가?"

"축하해요. 전무님."

조혜정은 허리를 숙여서 박통달의 입술에 가볍게 박치기를 했다. 박통달이 허리를 껴안으려고 달려들었다. 슬쩍 뿌리치고 소파에 앉았다.

"이 박통달이 물건만 큰 줄 알어? 꿈도 크다고. 두고 봐. 우리나라 최고의 한식 브랜드를 만들 테니까."

박통달은 소파 상석에 앉지 않고 조혜정 옆자리에 앉았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죠?"

조혜정이 한 뼘가량 옆으로 물러나 앉으며 물었다.

"누들월드를 주면 만족하겠어?"

"제가 누들월드 지분을 3프로 갖고 있다는 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전 월급쟁이 사장은 싫거든요."

조혜정이 일부러 박통달 옆에 찰싹 붙었다. 넓적다리를 붙이고 코맹맹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조 이사 처음부터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배포가 큰 줄 몰랐군. 그 문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냐."

박통달이 조혜정의 옆구리를 휘감아 젖가슴을 감싸며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지금 누들월드의 지분 배분 문제는 전무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위에 또 누가 있나요?"

"내, 내 위에 하느님이 계시잖아. 하느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문제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구."

박통달은 뒤늦게 실언했다는 걸 깨달았다. 잠깐 더듬거렸으나 이내 잘게 웃으면서 풍만한 젖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하느님에게 언제 물어보실 생각이신데요?"

조혜정은 천일만의 말이 생각나면서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통달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은 진실일 것이다. 책임지겠다던 사채 200억 원의 출처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젖가슴을 주무르는 박통달의 손등을 덮으며 속삭였다.

"지금 당장 물어볼 수도 있지."

박통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혜정의 목을 양손으로 끌어당겨서 입술을 덮으며 말했다.

"저는 20프로를 원해요."

박통달의 혀가 불쑥 입안으로 들어와서 저 혼자 놀다 나갔다. 조혜정이 옆으로 떨어져 앉으며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다.

"좋아. 20프로로 결정하지. 점심은 같이 먹지."

"만족해요. 그 정도면 몸 바쳐서 누들월드를 중국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점심은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같이 먹어요."

조혜정은 일어났다. 박통달이 허무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허리를 숙여서 이마에 살짝 입술 도장을 찍고 생긋 웃어 보였다.

천일만이 삼양빌딩을 매입한 다음 날이다. 박통달은 가벼운 기분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천일만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흰색 재킷을 입은 조혜정이 먼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커피는 항상 회의를 시작할 때 같이 마신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다.



"회장님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조 이사, 정말 내 얼굴이 좋아 보이나? 내가 볼 때는 박 전무 얼굴이 똥색으로 보이는데?"

"어머! 회장님도 농담하실 줄 아세요?"

조혜정은 선글라스 밖으로 박통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펴지는 것이 보였다.

"건물 등기는 언제 나오나?"

"직행료를 줬으니까 오전에 나옵니다."

박통달은 천일만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들려 안심했다. 비서가 커피를 들고 왔다.

"박 전무는 취미가 뭔가?"

"취미요?"

박통달이 커피잔을 들었다. 커피에서 뜨거운 김이 솟아오른다. 입술에 갖다 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취미가 얼른 생각나지 않는다.

"혹시? 누들월드 국수에다 과일 대신 바퀴벌레 넣기가 취미 아닌가?"

"예?"

박통달은 바퀴벌레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꿀꺽 삼켰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커피가 미치도록 뜨겁다. 벌떡 일어선다는 것이 커피를 조혜정에게 뿌렸다.

"앗! 뜨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조혜정은 얼굴을 덮는 커피 세례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굴이 뜨겁다. 얼굴에서 흘러내린 커피는 눈처럼 흰 재킷 위에 갈색 눈물처럼 뚝뚝 떨어졌다.

〈제3화 끝〉

# 대선 8개월 앞 프랑스 정계 '랑트레의 전투'

프랑스는 지금



손 우 현
한림대 국제학부 객원교수
전 주 프랑스 공사 겸 문화원장

테러로 얼룩진 여름이 끝나고 바야흐로 가을이 찾아왔다. 프랑스인들은 이때를 '랑트레(larentree)'라고 부르며 '새해 결심'과 같이 '랑트레의 결심'을 할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랑트레'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9월 초를 뜻하기도 한다.

이때는 프랑스 사회가 1년 중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다. 대자연의 품 안에서 또는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신성한 바캉스'를 즐기면서 심신을 재충전한 휴가객들이 일터로 돌아오면서 프랑스 사회의 각 분야는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각급 학교는 새 학년도를 맞이하고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은 재개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가을은 프랑스 정계에는 '랑트레의 전투'라고 할 정도로 여름 못지않게 뜨거운 계절이 될 전망이다. 내년 봄(4월 1차, 5월 결선)에 대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2008년 개헌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프랑스 대선은 프랑스의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2차 결선 투표가 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1965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온 경우는 아직 없었다. 과반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 2차 투표의 실시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외에 극우정당 등 포퓰리스트(대중인기영합주의) 정당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정권 탈환에 큰 기대를 거는 우파 진영에서는 석 달 후의 경선이 마치 대선 본선인 양 벌써부터 열기가 대단하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1)은 야당인 공화당 대표직을 사임하고 지난 22일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했다. 2012년 대선서 재선에 실패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출마 선언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나 그는 이번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프랑스를 위하며 모든 것을'의 서문을 통해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나 그가 11월 20일과 27일로 예정된 우파 경선에서 최대 라이벌인 알랭 쥐페 보르도 시장(71, 전 총리)을 누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경선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45%)를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쥐페는 우파 진영에서는 신망이 높은 원로 정치인으로 경선 출마를 위해 고전하고 있는 나탈리 코시위스코-모리제 전 환경장관의 지지 운동에 나설 정도로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경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내달 9일까지 국회의원 20명을 포함한 선출직 정치인 250명과 2500명 당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집권 좌파의 경우 관례대로라면 프랑수아 올랑드 현직 대통령(62)이 경선 없이 출마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회당 지도부가 내년 1월 대선 예비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를 위해 경선에 참여한다면 이는 프랑스 정치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10%대까지 내려간 올랑드의 기록적인 지지율 하락이 원인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해야 재출마를 고려하겠다며 이에 대한 결정을 12월로 미루고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프랑스 국립통계청(l'Insee)은 2분기 프랑스 본토 실업률이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하락한 9.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영토를 포함했을 때도 프랑스 실업률은 9.9%로 10% 이하로 내려갔다. 프랑스 실업률이 10%선을 무너뜨린 건 201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는 올랑드에게는 일대낭보다. 공영 TV 프랑스2는 29일 올랑드의 재출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올랑드는 (대선에서) 경제 실적이 중요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적인 현상이 된 권위주의의 유혹"에 맞서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한다. 지난번 선거 때 구호로 내세웠던 '정상적인 대통령(un presidentnormal)'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 실정과 계속되는 테러로 국민의 대정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호가 또다시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탐사 보도로 유명한 주간지 '카나르앙셰네(Le Canard Enchaine)'가 올랑드 대통령의 전용 이발사의 봉급이 각료급 수준인 월 9895유로(약 1200만 원)라는 사실을 폭로해 그의 '보통 대통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도 악재이다.

**휴가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프랑스인**
**좌우 양대 정당, 정치의 계절 막 올라**
**우파, 쥐페 선두 속 사르코지 출마 선언**
**지지도 바닥 올랑드 재선 도전 저울질**
**38세 마크롱 장관, 어제 장관직 전격 사임**
**사회당 우클릭 상징 '脫이념' 노선 주목**



프랑스 사회당 우클릭의 상징으로 떠오른 에마뉘엘 마크롱 전 프랑스 경제장관. AFP연합뉴스

한편, 아르노 몽트부르 전 산업부장관 등 올랑드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인사들이 3명이나 대선 출마를 선언해 좌파 진영도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대선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 신인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30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경제장관이다. 불과 38세인 그는 프랑스 엘리트의 산실인 ENA 출신의 테크노크래트다. 국립행정학교로 번역하는 'ENA'는 프랑스판 고등고시 제도로 ENA 출신들은 관계는 물론 프랑스 정계와 재계에도 포진하고 있다. 마크롱은 경제부를 거쳐 민간 투자은행 로칠드(Rothschild & CieBanque)에서도 근무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2012년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실 부실장으로 발탁했고 2년 3개월 만에 경제장관으로 승진 기용했다.

그는 올랑드의 사회당 정권에서 우클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일요일과 심야 영업 제한을 푸는 '마크롱법'(2014년)이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프랑스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요일에 백화점이 문을 닫아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강성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역대 정권이 손댈 엄두를 못 내던 사안이었다. 이외에도 마크롱은 사회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주 35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그 덕분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다.

올 4월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로운 정치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앙 마르슈(enmarche·나가자)'란 조직을 발족했다. 그는 이어서 5월 8일에는 프랑스 중부 도시 오를레앙에서 개최된 잔 다르크 축제에 주빈으로 초청됐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 행사가 지니는 상징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마크롱은 이날 기념사에서 백년전쟁 때 프랑스를 구출한 영웅 잔 다르크를 '진보와 통합의 인물'로 규정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마크롱을 21세기 프랑스의 '자칭 메시아(self-appointed messiah)'라고 호칭했다.

현재 앙 마르슈에는 5만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중 1만6000명이 올여름 10만 가구를 방문해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

'라그랑드마르슈'라고 명명한 마크롱 정치 여정의 시작이다. '라 그랑드 마르슈(la Grande Marche)'는 큰 행군이란 뜻으로 '장정(長征·la Longue Marche)'을 연상시킨다.

뉴욕타임스는 마크롱에 대해 '우상파괴주의자(iconoclast)'라고 규정했고, 영국 더타임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다음 지도자?(Emmanuel Macron: France's next leader?)'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마크롱이 기업인들을 백안시하고 여자를 장식품으로 보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이라는 사실은 매우 탈관습적(unconventional)이라고 논평했다.

마크롱은 19일 휴가 중 방문한 프랑스 중서부 방데 지역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마크롱의 탈이념 노선이 그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함께 좌우대결 구도이던 프랑스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선거 경험이 없는 그가 프랑스 정계의 노장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자신이 꿈꾸는 '장정'을 할 수 있을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잠을 부탁해
PART1.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조건, 감정관리
PART2. 노화로 인한 수면질환 피해갈 수 없나
PART3. 세상을 바꾸는 수면의학 꿈꾸다 코슬립수면의원 신홍범 원장
PART4. 졸피뎀, 자살위험 근거 부족하다 홍창형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PART5. 세계 명사들의 낮잠 예찬
PART6. 낮잠 주무시고 가세요!
PART7. 불면증을 이기는 이완법 세 가지 정선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정선용 교수
PART8. 꿀잠을 원하는 당신에게 권하는 상품
PART9. 릴랙스를 부르는 잠자기 전 10분 요가
PART10. 좋은 잠은 치매를 예방한다 오쿠무라 아유미 오쿠무라메모리클리닉 원장

브라보가 만난 사람



"두 친구가 가고 없는 세상, 텅 빈 것 같다" 〈백년을 살아보니〉 저자 97세 김형석 교수



올해 '이'세가 된 현경 교수와 결코 가볍지 않은 우문현답 마국 유니언신학대학 아시아계 최초 여성 종신 교수



"미술을 알아간다는 것은 친구가 생긴다는 것" 온가족과 유럽 미술관을 순례한 미술평론가 이주헌

9월의 맛
'황금콩밭'에서 수확한 두부 한 모
두부는 꾸밈없는 모양새에 맛도 심심하여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고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흔히 만나는 식재료이지만, 제대로 된 두부 맛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투박한 두부처럼 편안하고 진실한 맛을 자부하는 두부 전문점 '황금콩밭'을 찾아갔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정책발언대

김 종 석 새누리당 의원

# 규제영향분석, 의원입법 품질관리



한 달간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때아닌 한파가 몰아친 곳이 있다. 한여름에 한파가 웬 말인가 싶겠지만 국회에는 지금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대 개원 이후 첫 두 달 동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 강화 법안이 457개에 달한다고 한다. 규제 강화 법안이 하루에 5개씩 쏟아진 셈이다.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 강화 법안 비율'을 뺀 수치를 규제 온도로 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영하 53.1°R('R'는 'Regulation'의 약자)의 혹한이다. 규제 강화 법안 때문에 기업은 숨 죽이고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의원입법의 증가 자체를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론 등에서 법안 발의건수로 의원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이유로, 혹은 규제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에 무분별하게 규제 법안이 양산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에 반해 의원입법은 이러한 절차가 전무하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할 때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규제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과잉 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 생활과 경제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시기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더 이상의 졸속입법을 막고 의원입법이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법안은 꼭 통과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법률안 제출권을 의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지만,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자체 심의가 매우 엄정하고 다중적이라고 한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생산하는 생산물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다. 일부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을 두고 과도한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며 규제영향분석 시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인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다. 결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견제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분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옥죄면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문제다.

이제 입법 생산자인 국회가 법률의 '품질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회의 규제 법안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그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는 법률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으로 입법 남용을 막고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20대 국회에도 규제 한파를 녹여줄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

신율의 정치펀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추미애와 김무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추미애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데에는 친문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친박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대표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분석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일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정현 대표는 원래부터 친박이었던 반면, 추미애 대표는 태생적으로 따지면 친노가 아니라 동교동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가 된 것이라면, 이는 '이적(移積)'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추미애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찬성했었다. 그래서 친노, 친문과는 구원(舊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친노, 친문들은 이른바 순혈주의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그룹에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결속력이 강한 '우리 의식'이 친노, 친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친노, 친문들이 추미애 후보를 밀었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오히려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김상곤 후보가 친노, 친문들의 구미에는 더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결과는 추미애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래서 친노, 친문들이 어떤 판단에서 추미애 후보를 밀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친노, 친문의 의도대로 추미애 신임 당대표가 움직일지도 궁금해진다. 일단 추미애 신임 당대표는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라는 말이다. 이런 인물은 일반적으로 특정 계파의 의도대로 잘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 친문들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얼마든지 복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예측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친노, 친문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 말이다. 이런 예측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의 모든 일이 친노와 친문들의 의도대로 풀렸기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행동을 보면 이럴 확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마치 과거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을 연상하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이렇다.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 모두 당내 다수파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이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당시 당내 다수를 점했던 비주류의 지지를 받은 반면, 추미애 대표는 당내 다수파이자 주류인 친노, 친문의 지지를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태생적으로 민주계이고, 그 이후 친박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명박 정권하에서 친이계의 도움으로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한마디로 정통 친박은 아니라는 말이다. 추미애 대표 역시 동교동계로 출발해서 지금은 친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정통 친노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통 친박이 아닌 김무성 전 대표와 비슷하다.

이 같은 과거 경력으로 판단하면,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행보 역시 과거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때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 추미애 대표 역시 반드시 자신을 지지해준 친노, 친문의 입장을 대변하리라고 생각하기 힘든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인물 8월 31일

라몬 막사이사이

## 청렴으로 일관했던 필리핀 개혁의 아버지

"라몬 막사이사이(1907.8.31~1957.3.17)는 필리핀 개혁의 아버지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필리핀'이라는 저서에서 말했듯 막사이사이는 대통령 시절 토지 분배 등 필리핀의 고질적 문제에 메스를 가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루손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장장이였다.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자동차 운전사로 일하며 필리핀공대를 졸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회사 모터풀에서 근무했다. 일본군이 필리핀을 침공하자 항일 게릴라에 들어가 종전 때는 사령관이 됐다. 이 업적으로 1950년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51년에는 엘피디도 키리노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국방부 장관이 된 후 그는 군 숙청과 공산 게릴라 후크단의 토벌에 주력했다. 그러나 1953년 키리노 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택하자 장관을 그만두고 여당인 자유당에서도 탈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국민당의 공천을 받아 대통령에 입후보했다. 그는 대선 유세에서 "내가 먹기 전에 국민이 먹어야 한다. 나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해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결국 키리노 대통령을 더블 스코아로 누르고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 사람의 병사"로 자처하면서 토지 분배와 학교 건설을 강력히 추진했다. 아울러 "부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켰다. 이렇게 개혁정책으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1957년 세부섬의 대학에서 연설한 후 마닐라로 돌아오던 중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그의 유산이라곤 생명보험 증권 1매와 마닐라 교외에 있는 허름한 집 한 채뿐이었다. 그가 타계한 뒤 아시아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막사이사이상이 만들어졌다.

이은호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leeeunho7@

카드로 보는 세상




TV프로마다 음식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맛집 소개는 기본, 요리 대결에 많이 먹기 경쟁까지 쉴 틈이 없죠. 그런가 하면 SNS에는 시각을 자극하는 음식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음식 사진에 대한 탐닉, 자극적인 먹는 모습 경쟁은 '푸드 포르노(food porno)'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식으로 대리만족하는 모습이 '포르노'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파고든 푸드 포르노, 당신도 이미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t298qg

온라인 와글와글



## '기준치 59배' 농약 채소 적발 "건강 챙기려다 건강만 버리겠네"

서울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의 59배까지 검출돼 서울시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점에서 채소 1030건, 과일 148건 등 농산물 117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쌈 채소 5품목 10건에서 허용 기준을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고수와 깻잎은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의 각각 59배, 26배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가 적게 내려 출하 전 농약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남은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건강 챙기려고 채소, 과일 먹다가 오히려 건강만 버리겠네", "과일 껍질에도 잔류 농약 많다던데", "농약을 안 치면 과일이나 채소가 남아나질 않고, 그렇다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고 농민들도 걱정이네"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희소식!!!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윗스폿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크면 스윗스폿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에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 지고있는 추세.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짜릿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한다.

두배로 넓어진 스윗스팟(sweet spot)면적







신제품 론칭기념 20만원 할인 판매중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짤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국제특허 비틀림 방지샤프트 ※충격흡수 Winn 특수그립

유쾌, 상쾌,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m는 늘어났고 왼발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훅이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큽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훅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드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아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왕꼬마〉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딩!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저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설렘과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만에 아우디장식(파 연속4개)거의 파온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들 추카추카.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가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함인희 칼럼



이화여대 교수

# 한글팻말 없는 영화관

올 여름 폭염에 활짝 웃은 곳 중 하나로 영화관이 꼽혔다고 한다. 관객들은 시원한 영화관에서 더위도 피하고 재미난 영화도 관람하며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기쁨을 누렸다는 소식이다. 그러고 보니 "세월의 흐름에 장사 없다"고 영화관에 얽힌 추억 또한 꽤 다채로울 것 같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엔 '일하는 언니'가 둘 있었는데, 언니들 손에 이끌려 동네 극장을 자주 출입하곤 했다. 언니들이 굳이 나를 데려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내 키가 유달리 작았던 탓에 4학년 때까지도 극장을 '공짜로' 들락날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를 데리고 가면 뭇 남성들의 집적거림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난 어릴 적부터 신성일, 신영균, 최무룡, 남궁원에 윤정희, 문희, 남정임, 고은아가 주연으로 나오는 어른용 영화를 실컷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보며 주인공의 눈물겨운 사연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며 아역배우 김정훈의 연기에 감동해 함께 울기도 했다.

한데 정작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납량특집 '혹 달린 여자'(제목이 정확하진 않지만)였다. 얼굴 한쪽이 커다란 혹으로 뒤덮였던 주인공의 흉측한 모습이 너무 무서워, 함께 간 언니의 팔을 꼭 붙잡고 한쪽 눈을 가린 채 벌벌 떨며 영화를 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로 귀신영화는 절대로 안 본다는 불문율이 생겼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중간시험이나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날 단체 관람을 하곤 했다. 당시는 중·고등학생의 극장 출입을 엄격히 규제했던 시기인지라, 나 같은 범생(凡生)들은 모처럼의 단체 관람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우리가 단골로 갔던 극장으로는 대한극장, 단성사, 피카디리, 국제극장 등이 떠오르고, '벤허', '십계', '기적', '닥터 지바고' 등의 대작을 보았다. 영화 시작 전 모두 일어나 애국가 한 번 부르고 '대한 늬우스' 보고 나서야 영화가 시작되던 시절을 생각하노라면 웃음이 절로 난다.

대학 시절 영화 관람은 연인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였는데, 주말이면 극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암표상이 활개를 치곤 했다.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겨울여자', '고래사냥' 등이 당시 대학생의 필수관람 목록이었는데, 유독 대학 3학년 때 '스타워즈'를 보며 느꼈던 생경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곳의 극장은 모두 여러 편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복합 상영관이란 사실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다. 가난한 유학생에게 영화 관람은 나름 호사스런 취미였는데, 미국의 극장은 친절하게도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인지라 주말이면 친구와 함께 영화 한 편 값만 내고 들어가 몰래 여러 편의 영화를 공짜로 보는 은밀한 일탈을 즐기곤 했다. 굳이 영화표를 점검하는 직원이 없었기에 2편은 기본이고, 많게는 4편까지 본 후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도 CGV나 메가박스와 같은 복합 상영관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한데 이들 복합 상영관을 찾을 때마다 영 익숙해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 이번 폭염에도 어르신을 모시고 집 가까이 새로 문을 연 CGV를 찾았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영화표를 끊으려는데 한편엔 'self ticketing'이란 팻말이 걸려 있고, 반대편 구석엔 'ticket box'란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하기야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예매하고 오는 고객이 많을 테지만, 그래도 한글 팻말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볼 수가 없음에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한글만을 고집하는 폐쇄적 국수주의자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통 영어로 뒤덮인 국적 불명의 영화관을 찾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련다.

영화관은 어린 시절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공간이다. 그런 만큼 우리 것의 가치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개념 있는 공간'으로 다시 꾸며봄은 진정 멋진 생각 아닐까?

---

객석 진 세 림 COLOR IN 대표, 컬러이미지컨설턴트



# 당신만의 특별함, 퍼스널컬러

긴 생머리에 하늘하늘한 원피스보다는 단발머리, 가죽재킷과 스모키 화장. 배우 고준희의 트레이드 마크다. 데뷔 초 청순한 이미지를 연출했던 고준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난 후 오히려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늘씬한 여배우' 아무개가 아닌 자신만이 가진 분위기와 매력을 제대로 찾았기 때문이다.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는 개인이 타고난 신체 색상(피부, 눈동자, 머리카락)을 말한다. 사람마다 생김새와 퍼스널 컬러가 모두 다르다. 특히 색은 생김새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존의 유행을 거부하고 자신과 꼭 맞는 색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의상, 액세서리, 헤어, 메이크업 등 다양한 범주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찾으려는 '창조적 시도'가 연예인과 정치인을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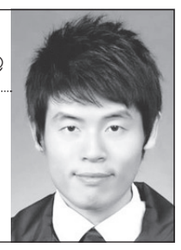
최근 상담 고객 중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기억에 남는다. 자신보다는 자식에게 더욱 투자해온 평범한 어머니였다. 스스로 꾸미는 것을 어색해하고 부끄럽게 느꼈다. 그러나 컬러 진단을 받고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는 누구의 엄마나 부인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고객마다 각기 다른 색을 찾아주면서 '컬러'를 찾는 것 이상으로 일상에서 '나다움'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눈동자와 피부색이 아니더라도 정체성, 성격, 포즈, 자세 등이 퍼스널 컬러를 구현하고 또 이것이 바뀌면서 개개인의 독특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행하는 의상과 메이크업, 똑같은 포즈와 표정을 깨고 '나'에 집중해 보자. 당신만 가진 특별한 매력이 어떻게, 얼마나 보이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매력을 찾아 나를 꾸미는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란다.

---

기자수첩 김 정 유 산업2부/thec98@



# '제2 벤처붐' 빛과 그림자

바야흐로 '제2의 벤처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대적인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최근 1~2년간 창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자, 국내외에서 대거 자금이 뒷받침되면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발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창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암(癌)적인 요소도 불거진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나쁠 수도 있는 문제다.

"창업은 요새 누구나 할 수 있자나요. 정부 지원금이 많아서 돈을 크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대학교 창업동아리에 속한 한 대학생이 최근 기자와 만나 한 말이다. 이 학생은 대학생 신분으로 회사를 하나 창업했지만, 끝까지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창업한 경력을 대기업에 가기 위한 '스펙'으로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사업을 쉽게 따낼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친다. 최근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손쉽게 많이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브로커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며 "제안 수수료도 비쌌고 제대로 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거절했지만, 업계에 이런 브로커들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너무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들이다.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많이 준다고 창업 생태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기준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만 노리는 암적인 요소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반대로 창업에 올인한 진정한 청년창업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1부 차장

#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이 젊은층의 공감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헬조선은 2010년부터 취업난과 전세난, 보이지 않는 신분사회 고착화 등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젊은층이 냉소하며 '지옥(Hello)'과 '조선'을 결합한 신조어다.

과연 대한민국 현실은 헬조선일까.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최빈국이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 국민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경기 불황에 여기저기서 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이라며 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상장사 기업 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헬조선을 외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착시효과라느니 불황형 흑자라고 폄하하기 바쁘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빼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지만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급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0달러가 넘던 국제유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철광석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원가가 줄어드니 제품 가격도 내려갔고, 당연히 매출 규모도 감소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증가해 매출 100억 원에 이익 1억 원이 나던 상황에서 매출 90억 원에 이익 1억 5000만 원이 나고 있다. 이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젊은층이 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지 이상하게 여긴다고 한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해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신용등급을 매겼다. 이런 나라에서 젊은층이 헬조선이라며 자조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투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헬조선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라며 곧 폭락할 것이라고 외치던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이라면 지금의 전세금으로 3~4년 전에 그 집을 살 기회를 놓쳤다. 주가지수 1000포인트로 폭락했어야 할 주식시장은 205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시세로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사서 몇 억 원을 벌고, 자신보다 적은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이 주식투자로 몇 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헬조선에 빠져 있던 사람은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빠진다. 그리고 뒤늦게 뛰어들 때, 그때 상투를 잡고 두고두고 고생할 수 있다.

무조건 부동산을 구입하고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소한 재테크나 경제활동은 어떤 주장이나 현상에 대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은 헬조선을 외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해 보자'라는 희망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skj78@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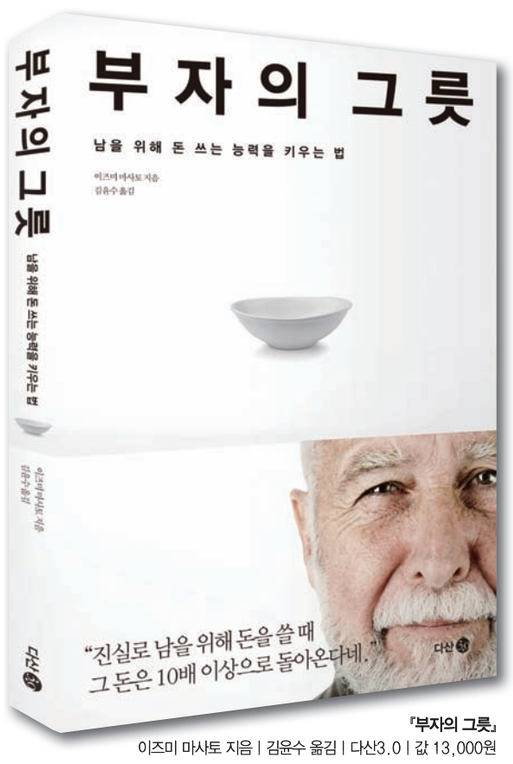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지음 | 김윤수 옮김 | 다산3.0 | 값 13,000원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나?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눈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눈 노인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순 없을 거 같아'라며 걱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 간편이체·세금납부·해외송금 '검지 콕' … 스마트뱅킹 新기술 '엄지 척'

## 핀테크가 바꾼 금융지형도

**올해말 '인터넷은행 출범' 앞두고**
**은행권 '스마트뱅킹 강화' 잰걸음**
**계좌 몰라도 휴대폰 번호로 송금**
**앱에서 스마트고지서 확인 결제**
**핀테크發 금융신세계 개봉박두**

금융과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가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연말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은 앞다퉈 스마트뱅킹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은행 영업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모바일 전용 금융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는 추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비톡·위비멤버스·위비마켓·위비뱅크로 구성된 위비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비꿀적금' 등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3개의 모바일 전용 금융상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특히 우리은행은 베트남 전자결제 분야 1위 핀테크 업체인 '엠_서비스(M_Service)'와 손잡고 베트남 리테일 비대면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베트남 근로자와 베트남 내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인 인도삿(Indosat Ooredoo)과 '간편해외송금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지역 간편해외송금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등 모바일 종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핀테크를 통해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송달 및 수납'을 개시한다. 고객들은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타행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써니뱅크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Sunny간편이체' 서비스도 시작해 OTP(일회용 패스워드), 보안카드 등의 별도 보안매체 없이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하루 최대 50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Sunny간편이체' 이용 시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이체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Sunny간편이체' 서비스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개발한 간편송금 솔루션인 Toss를 기반으로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하며, 수취인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수취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출시한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에 인터넷·스마트뱅킹 전용 예·적금 상품을 탑재할 계획이다. 비대면 상품인 만큼 일반 예·적금보다 우대금리를 높여 0.4~0.5%포인트 가량 제공한다. 다음 달 농협은행은 이 같은 모바일 거래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 '올원뱅크' 전용 예적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에 금융권 대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사업이란 이메일과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뤄지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도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이번 스마트고지서 사업에 '오픈플랫폼' 개념을 도입, 호환성이 높고 응용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체에는 자금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복안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하나멤버스를 출시한 지 10개월 만에 가입자 600만 명을 돌파하며 이 부분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삼성전자와 핀테크 부문 전략적 제휴 체결 이후 모바일 뱅킹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 보내기·받기, 내계좌 이체, 바코드 결제 등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홍채인증 기술을 확대 적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기존 은행들이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과의 접점을 영업점 중심에 두는 영업전략도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노란우산공제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희망장려금
1년간 매월 1만원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2016. 3. 2. 이후 가입자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홍보대사 유준상

노란우산공제가 대한민국 사장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후 2년간)

※ 2016. 1. 1일 이후 가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App Store 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 핀테크 기술 어디까지 왔나

# 휴대폰 들고 눈 깜빡하면 결제·송금
# 사기꾼 막아주고, 주식투자 도우미로

불과 2년 전만 해도 금융과 정보기술(IT) 업계의 융합 산업군인 핀테크에 관심이 높지 않았다. 지난해 초부터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권에 성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국내 기술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서비스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기존 마그네틱 카드와 호환성을 전면에 내세운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는 누적 결제 2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선 가맹점이 단말기 교체가 필요하지만, 삼성페이는 기존 단말기로 스마트폰 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능 내놨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을 할 수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도 서비스 1년 반 만에 누적 송금 1조 원을 기록해 간편 송금을 널리 알리고 있다.

토스는 기존의 번거로운 계좌이체 과정을 3단계로 압축한 것이 특징이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입력하고 금액, 암호를 누르면 간편하게 송금이 끝난다.

특히 받는 사람은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수의 은행 계좌를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앞으로 토스 내에서 여러 은행 계좌의 실시간 잔고와 거래 상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계좌 조회 기능'을 내달 도입할 예정이다. 토스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을 토스 서비스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P2P대출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투자자 위험성을 지적받으며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시스템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급격히 낮춰준다.

P2P대출 중개기업에선 그동안 중신용자의 신용등급 체계를 꾸준히 개발해 은행과 제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곳까지도 생겼다.

전자거래를 위해 사기범의 계좌번호를 데이터로 구축해 구매자가 송금 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더치트'의 서비스도 눈에 띈다.

홍채인식과 지정맥인식 등 생체인증과 관계된 기업도 대거 출연했다.

최근 금융권에선 생체인증을 통해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래의 일반적 금융거래의 모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생체인증 정보를 분산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조만간 생체인증 자료 저장의 위험성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람 기자 hura@

# ‘금융상품 한눈에’와 만나면 베테랑 설계사 부럽지 않아요

〈예·적금 대출 비교 검색 사이트〉









## 금감원 금융정보서비스 100% 활용하기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금융지식을 갖추는 게 기본적 소양이 된 시대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징계를 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면, 국민들에게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알리고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 금감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100% 활용하면 어려운 금융이라는 인식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학생들 금융교육 앞장 = 금감원의 자랑 중 하나가 뛰어난 금융전문가의 교육지원 서비스다.

금감원은 전국 각 초·중·고교와 금융회사의 각 지점을 이어주는 ‘1사1교 금융교육’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결연 금융회사가 결연 학교 학생들에게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강사에 대해 교육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청은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다양한 교육 자료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영상, 생활만화, 용어해설, 생활금융 교과서 자료, 교구재 등을 제공해 먼 지역의 학교에서 재밌게 금융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금감원은 홍보관인 ‘금융마루’를 평일 일과시간 동안 개관 중이다. 초등학생 이상 학생들은 누구나 가서 금융교육 체험, 금감원 역사 소개, 영상 관람 등을 할 수 있다. 20인 이상 단체도 등록할 수 있어 한 번쯤 다녀올 만하다.

◇재산과 부채관리 상담 서비스 = 돈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퇴직을 앞둔 회사원 이모(57) 씨는 노후 준비 자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다.

퇴직 후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두 아들의 결혼 자금을 떼고 나면 막상 본인을 위한 자금은 부족할 것 같다는 게 문제였다.

금감원의 금융전문상담원은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연금 공백기, 퇴직 후 해외여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따져보고 이씨에게 퇴직할 때까지 저축 가능한 금액의 50%만큼만 자녀를 도와주라고 권유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식·펀드는 유지하되 추가 저축은 안전자산에 넣고, 은퇴 전까지 꾸준히 지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이 씨처럼 올해 상반기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모두 7064건일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담 연령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으며 연령별로 주요 질문 사항은 달랐다.

20대는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저축방법 등, 30~40대는 자녀학자금 마련 및 주택마련 자금과 부채 관리, 50대 이후는 노후·은퇴 자금 마련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금융정보 한 번에 모아보기 = 최근 예·적금, 대출 등 여러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절세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도 시작했다.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절세금융상품의 세제혜택 조건, 가입 한도, 중도 해지 시 손실 등을 비교 안내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세제혜택을 따져볼 수 있다. 절세금융 상품은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거나 손실을 볼 수 있어 가입 전에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공적 대출 중개기관인 한국 이지론의 대출 신청 화면을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와 연결해 개인별 맞춤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의 소득, 직업, 재산 등 개인 신용정보를 입력해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고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들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맞는 대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능도 추가했다.

현재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은 모두 850여 개이며 사이트는 지난 1월 중순 문을 연 이후 10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비교 검색한 금융상품은 정기예금(34.1%)이었고 적금(27.9%), 주택담보대출(10.0%), 연금저축(9.2%) 등이었다.

김우람 기자 hura@

**초·중·고 대상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동영상·생활만화로 금융정보 쉽게 풀어내**

**20대는 학자금 대출… 50대는 노후준비**
**올 상반기 금융자문서비스 7000건 넘어**

**850개 금융상품 금리·수익 비교 검색**
**한국이지론 홈피 연결 맞춤 대출 지원**

5분 투자 경제상식 국제금융시장 통용되는 ‘리보’는?

# 1년 이하 단기자금 조달 때 적용되는 기준금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시장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은 국제금융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번엔 국제금융시장에 통용되는 단기금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금융거래가 지속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및 파생금융 상품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금융시장으로는 런던, 뉴욕, 도쿄 금융시장을 들 수 있다.

금리는 기간에 따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시장금리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시장금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적인 단기시장금리가 리보(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은행간 금리)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서 무담보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리보는 NYSE Euronext의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5개 통화(미 달러, 엔, 유로, 파운드, 스위스 프랑) 및 7개 만기(1일, 1주일, 1·2·3·6·12개월)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티보(Tibor·Tokyo Interbank Offered Rate, 일본은행간 금리)는 일본의 도쿄 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이다. 리보와 유사하며 유로엔 금융선물거래나 금리스와프거래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단기시장금리로는 FFR(Federal Funds Rate, 연방자금금리)와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우대금리)를 들 수 있다. FFR는 미국의 예금취급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준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이다. 1980년의 예금취급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 따라 모든 예금취급기관은 동일하게 미 연준(Fed)에 필요지준을 예치해야 한다. FFR란 지준시장에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제공하는 1일대출(overnight loan)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미 연준이 FFR 목표를 정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FFR가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FFR의 움직임을 통해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은행 간 초단기 대출 이자율인 FFR는 은행시스템의 자금 사정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FFR는 국제금융시장의 다른 단기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프라임레이트는 미국 상업은행이 가장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에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된다. 프라임레이트는 기업과 금융시장의 금융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료=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中
도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서지희 기자 jhsseo@



# 정기예금보다 수익률 더 높은 '안전 금융상품 4가지'

PB의 **티타임**

박 일 규
신한은행 PWM서초센터 팀장



**우량 회사채 등 투자 '특정금전 신탁'**
**공기업 기초자산 설정 '파생결합증권'**
**'공모주펀드' '외화자산' 상품도 추천**

평범한 가정주부인 K씨는 집 앞에 있는 모 은행을 주로 거래하지만 다른 은행 PB센터 몇 군데와 증권사도 이용한다. 젊어서부터 몸에 밴 검소함과 이런 부지런함 덕분에 K사모님은 직장인들이 부럽지 않게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근로소득만큼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최근 많은 고객분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해봤자 재미가 없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란 돈에 1%의 차이라고 해도 연간 100만 원의 투자수익의 차이가 발생한다. 100만 원이란 소득을 직접 일을 해서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다. 주위에 귀찮다며 또는 위험한 상품은 싫다며 그냥 정기예금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 대비 투자수익이 양호한 상품을 경험한 이후 만족해하시는 고객층이 늘고 있다.

원금 보장만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발품을 팔면 정기예금보다 안정적으로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상품 군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시로 모집되는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있다.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감안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 은행에서 모집하는 이 상품은 보수적인 고객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채권 전문가 그룹이 신용등급·재무구조 등을 사전 평가해 안전성 높은 채권을 필터링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맞춤형 신탁은 주로 우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 또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투자대상으로 발행된다. 개별 상품마다 신용도가 다르나 관심 갖고 찾아보면 정기예금보다 연 1% 이상의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2년제 채권 상품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 끌었던 사례도 있다.

발행회사의 신용도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업 신용 분석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만기에 일시에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있다. 투자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긴 것은 2년이 넘는 것도 있어 자금 운용계획에 맞추어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적은 공기업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AAA등급), 한국가스공사(AAA등급), 경기도시공사(AAA) 등 국내 시중은행 신용등급보다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공기업의 신용사건(파산이나 채무불이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이 주를 이룬다. 우량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나 전체적인 업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상품의 경우 해당 공기업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수익률보다 추가 금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반복적으로 재투자하는 고객층이 많다.




셋째 국공채 또는 하이일드 채권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본으로 하고 자산의 일부를 공모주 청약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모주 펀드를 추천한다. 개인투자가가 공모주시장에 참여하는 건 번거롭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몰리는 인기공모주의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로 인해 배정물량이 현저하게 작다. 이에 비해 기관투자가(공모주펀드)는 공모주 한도 배정을 개인 청약에 비해 1.5배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게임즈, 두산밥캣 등 굵직한 기업들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 공모주시장 전망이 밝은 것도 추천 사유이다.

넷째 최근 달러가 1100원대로 떨어지며 달러 상품을 보유를 선호하는 고객 늘고 있다. 물론 환율 하락에 따른 투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금융자산을 원화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외화자산을 보유할 것을 추천한다. 달러를 직접 매입하거나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달러 ELF에 투자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겠으나 필자는 아래의 두 가지 상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분할매수형 Wrap(원달러)' 상품은 원·달러 환율이 일정환율(115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지수펀드(ETF)를 분할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연 5~7%의 수익을 목표로 운용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추가로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경우 달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내외인 은행의 외화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2%대 초반)이 10년간 확정금리로 적용되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몰론 보유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차익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위에 설명한 몇 가지 상품들은 은행의 PB센터와 같은 곳에서 수시로 모집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 담당 직원에게 부탁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요즘은 일반 영업점에서도 소개를 통해 은행 PWM 상품 가입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목돈을 만드는 것도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모인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는 일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서 최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투자 대상 기초자산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투자자 자신이 발품을 팔며 공부해야 한다. 나 대신 24시간 차곡차곡 자산을 늘려줄 똘똘한 금융상품을 찾아보는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보험

## '추가납입 제도' 활용하면 환급금 더 많다

**모집 수수료 부과되지 않기 때문…**
**자동이체 불편, 고객 중 3%만 이용**




#A씨와 B씨는 같은 보험사의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해 매월 3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A씨는 30만 원 모두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했고, B씨는 10만 원은 기본보험료로, 20만 원은 추가납입 방식으로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 시점, 추가납입했던 B씨의 환급금은 A씨보다 145만 원 더 많았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을까? 바로 추가납입제도 이용 여부의 차이다.

추가납입 제도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해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업비 등 명목으로 선(先) 공제된다. 반면 추가 납입을 선택하면 모집수수료(보험료의 7% 정도)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료의 2% 수준인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매월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는 비용이 A씨는 1만7790~2만8380원으로 B씨 1만3490~1만3530원보다 많았다. 추가납입한 B씨의 경우 사업비 공제액이 적으니 저축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셈이다.

이런 추가납입제도의 장점에도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 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손수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 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제도를 안내하면서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 활용이 적을 뿐이지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입사 초기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월급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다만, 온라인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잘 따져보는 게 좋다. 금감원은 추가 납입보험료에 납입 한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저축성보험별로 한도가 다른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 ‘수익률 톱10’ 모두 증권사…해외투자·고위험상품 웃었다

## ‘만능통장’ ISA 출시 반년…실적 따져보니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지 반년이 지났다. ISA는 한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담아두고 관리할 수 있으며 세제 절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ISA는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시하고서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5월 말부터 ISA 신탁형 상품의 수수료를 공시한 데 이어 지난 6월말부터는 일임형 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 공시했다.




### ◇은행보다 증권사…국내보다 해외=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15개 증권사(116개)와 4개 은행(34개)이 출시한 150개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올해 4월 1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3개월간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증권사의 MP 평균 수익률이 0.91%로 은행(0.37%)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으로 놓고 봐도 증권사가 출시한 상품들이 상위 10위권에 모두 포함되는 등 증권사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상품별 수익률을 보면 ‘메리츠ISA고수익지향형B’ 3.58%, ‘메리츠ISA성장지향형B’ 3.18%, ‘메리츠ISA성장지향형A’ 3.05%, ‘메리츠ISA고수익지향형A’ 2.91% 등 순이다. 모두 초고위험~고위험 상품으로, 4개월간 누적 수익률은 4~5%로 더 높다.

**150개 ISA상품 모델포트폴리오 분석**
**증권사 수익률 0.91%, 은행의 2.5배**
**3개월간 3.58% ‘메리츠고수익B’ 1위**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6월말 ISA 다모아(isa.kofia.or.kr)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일임형 상품을 살펴보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5.01%를 기록한 HMC투자증권의 고수익 모델포트폴리오(MP) ‘수익추구형 B2(신흥국, 대안투자형)’다. 이 MP는 100% 해외주식형으로 생명공학주(20%), 중국주(30%), 글로벌 해외신흥국주(20%), 아시아태평양주(30%) 등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수익률 2위도 HMC투자증권의 ‘고수익추구형A1(선진국형)’ MP로 4.92% 수준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살펴봐도 ‘HMC투자증권 수익추구형 B2(신흥국, 대안투자형)’는 지난 3개월간 5.0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HMC투자증권은 ‘고수익추구형A1(선진국형)’과 ‘수익추구형A2(선진국형)’ 상품도 각각 누적 수익률 2위(4.92%)와 4위(4.58%)에 올려놓았다. 이는 1분기 1분기 시장 상황과 절세 효과에 초점을 맞춰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점이 수익률 차별화로 나타난 효과로 풀이된다.

**일임형 셋 중 하나 엉터리 수익률 공시**
**기업銀 ‘고위험플러스’ 1.6%P나 높여**
**실무 착오라지만 계산원칙 몰라 ‘눈살’**

### ◇수익률에 ‘연연’…엉터리 공시 투성이=이번 ISA 다모아 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금융사별 ISA 수익률 정보의 3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9일 19개 금융사가 공시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150개의 수익률을 점검한 결과, 7개사의 MP 47개가 기준과 달리 수익률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IBK기업은행의 MP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자 금융사들이 공시한 ISA 수익률(출시후 3개월)에 대해 그동안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47개 중 25개 MP의 수익률은 실제보다 높았고 22개는 오히려 낮았다.

수익률이 높게 공시된 MP 중 12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과 격차가 0.1%포인트 이하에 그쳤으나 4개는 1%포인트를 초과했다.

실제와 수익률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1.6%포인트의 차이가 난 IBK기업은행의 ’고위험 플러스’ MP다. 공시 기준대로 계산하면 -1.07%인데 회사측은 0.53%라고 공시했다.

수익률이 실제보다 낮게 공시된 22개 중 16개는 실제와의 수익률 격차가 0.5~1.0%포인트였다.

허위 공시 고의성에선 대체로 실무적인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보다 수익률을 오히려 낮게 잡은 회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임계약의 특성 상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세한 계산원칙을 정하고 이를 모두 준수하면서 MP 수익률을 산출해야 하지만 수익률 산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류 공시와 관련해 제재 조치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별도로 진행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

이철환의 돈 이야기

# ‘세로’ 디자인 스위스 ‘프랑’화, 가장 완벽한 위조방지 장치 갖춰



유럽연합의 공식 화폐인 유로화는 1999년 1월부터 화폐실물은 없이 가상화폐로 처음 등장했다. 그러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12개국에 화폐실물이 공급되면서 일반 상거래 수단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 총 19개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의 마르크화, 프랑스의 프랑화, 이탈리아의 리라화, 그리스의 드라마크화 등 그동안 EU 가입국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화폐는 역사의 유물로 남게 됐다. 하지만 EU 회원국 총 28개국 중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19개국에 불과하며, 영국·스웨덴·덴마크 등 9개국은 아직도 계속 자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화가 통용되면서 적어도 유로지역 내에서는 환위험이 없어짐과 함께 각종 거래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생기게 됐다. 반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고유의 통화정책 포기라는 부담스러운 기회비용도 초래됐다. 즉 개별 국가들은 자국 중앙은행이 있지만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임의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는 반드시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통화정책방향을 따라야 하는 제약을 갖게 됐다. 또한 유로지폐의 디자인에 대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는 찬사가 나오는 한편,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향기를 간직한 개별국가들의 기존화폐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 이러한 향수를 고려해 동전화폐인 유로주화에는 지금도 개별 국가의 독특한 색채를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 밖에도 주요 통화로서 영국의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가 있다.

파운드화는 달러화 이전의 기축통화였다. 영국은 1816년 최초로 금본위제도를 채택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파운드화로 바꿔주는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당시 영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60%를 담당했고, 런던 금융시장은 전 세계 투자규모의 절반을 소화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파운드화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사정이 달라졌다. 전쟁비용을 마련하느라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탓으로 금본위제가 파탄이 났다. 결국 영국은 1914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1931년에는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돈은 가로로 디자인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고 세로로 도안된 화폐가 있다. 바로 세계 최강의 위세를 자랑하는 스위스 프랑화(CHF. SFr)다. 10, 20, 50, 100, 200, 1,000 프랑 등 6종류가 있는데 모두가 세로로 도안되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다른 통화와의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하다.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연방의 존재 이유가 될 정도로 강력한 화폐이다. 또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위조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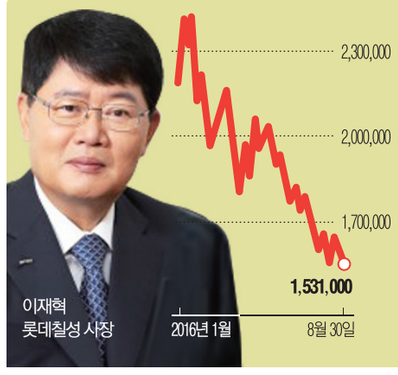
기타 주요국의 통화로는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크로네, 스웨덴의 크로나, 러시아의 루블화 등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루피화를 사용한다. 이슬람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리알, 아랍에미레이트(UAE)는 디르함,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등은 디나르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페소화를 사용하고 있다.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롯데칠성 주가 (단위: 원)




주가 동반하락 '쓴잔' 기울이는 주류株

# 수입맥주에 김빠진 하이트진로 과일소주 열풍 사라진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주가 (단위: 원)




국내 주류업계 라이벌 기업 롯데칠성음료와 하이트진로의 주가가 국내 주류 시장의 침체 속에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사업부 부진이 계속됐고, 고속성장하던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문는 순하리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두 회사는 증시에 상장된 양대 주류기업이다. 1933년 조선맥주주식회사에 뿌리를 가진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인 반면, 롯데칠성은 2009년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롯데주류BG를 세우고 주류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롯데칠성은 2011년부터 이재혁 사장이, 하이트진로는 올해 4월부터 김인규 사장이 각각 경영을 맡고 있다.

두 회사의 주가는 수개월째 동반 부진을 보이는 중이다. 2월만 해도 3만1000원선이었던 하이트진로는 현재 2만2000원 선으로 반 년 동안 약 3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롯데칠성은 작년부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8월 말 228만5000원이었던 주가는 현재 153만1000원으로 1년 새 33% 하락했다.

하이트진로의 주가가 부진한 배경은 맥주 부문의 실적 부진이다. 하이트진로는 올 상반기 매출 9098억 원, 영업이익 548억 원으로 작년 수준의 실적을 유지했지만, 부문별로 뜯어보면 올 상반기 맥주 사업부 영업손실은 252억 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졌다. 한때 전체 매출에서 맥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40%대 초반에 그친다. 그만큼 맥주 부문 위상이 많이 약해졌다. 주력사업이었던 맥주 부문 부진은 회사 전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라이벌 주가

**하이트, 국내 시장점유율 뚝**
**상반기 맥주 영업손실 252억**
**롯데, '순하리' 매출급감 역풍**
**'처음처럼' 가격인상 효과없어**

하이트진로 맥주 부문 실적 부진은 수입맥주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금액 기준 15% 수준으로 전년 대비 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 대형마트와 편의점 내 수입맥주 매출 비중은 이미 40%를 넘어선 상태다. 해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맥주 성수기' 여름철에도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웃지 못했다.

하이트진로가 맥주사업 부진에 고생하고 있다면 롯데칠성은 소주사업이 속을 썩이고 있다.

과일소주 '순하리'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매출 공백이 발생한 것. 롯데칠성의 주류(롯데주류) 사업부문 올 반기 영업이익은 2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다. 롯데주류는 작년 말 처음처럼 가격을 6.4% 인상했음에도 수익성 하락을 막지 못한 것이다.

새로 출시한 탄산소주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롯데칠성 주류부문의 탄산소주 판매량은 순하리 매출 감소를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여기에 최근 검찰 조사와 부회장 자살 사건 등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테마·품절株 투자 열에 아홉은 '개미'

올 들어 우리 증시에서 품절주, 지카바이러스주 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주에 대한 개인투자자 비중은 평균 94.6%에 달해 불공정거래 및 주가하락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연초부터 지난달 7월 29일까지 12개 테마 총 134종목의 테마주를 분석한 결과 품절주(147.0%)의 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데즈컴바인은 품절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지난 3월 16일 198만4100원까지 상승했지만, 유통주식수가 급증한 이후 7월 말 5250원을 기록해 고점 대비 97% 급락했다.

품절주에 이어 지카바이러스(142.3%), 신공항(86.0%), 이란(85.7%), 정치인(79.6%) 등의 순서로 테마주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

이들 테마주는 주가 상승기에 시장별 대표지수보다 주가가 4~6배 상승했으나, 최고가 이후 주가 하락기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테마주의 개인투자자 평균 비중은 94.6%로 매우 높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거래 발생 또는 주가 거품이 소멸할 때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IPO 車 플라스틱·모터 부품 제조 유니테크노

## "공모자금 中 현지법인에…전기차 진출도 속도"

**0.02㎜ 오차 초정밀 사출기술**
**윈도·브레이크·와이퍼 등 생산**
**최근 배터리 커버 개발도 진행**



자동차용 플라스틱·모터 부품 전문기업 유니테크노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전기차용 배터리 커버 시장 진출과 중국에 제2 법인을 설립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유니테크노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유니테크노는 자동차의 엔진 파워트레인, 미션, 각종 모터에 사용되는 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유니테크노가 생산 중인 부품이 적용되는 차량용 모터부품은 윈도, 전동식 스티어링 휠(EPS), 오토미션, ABS 브레이크, 와이퍼 등 다양하다.

다양한 원재료에 미네랄(Mineral), 탄소(Carbon), 유리섬유(Glass Fiber) 등을 배합해 만든 특수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사용, 0.02㎜의 오차만을 허용하는 초정밀 사출 기술로 이들 제품을 제조한다.

최근 국내 가솔린, 디젤차 부품 분야에서 입지를 굳힌 유니테크노의 시선은 전기차와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수기업과 가솔린, 디젤 자동차용 플라스틱 배터리 커버 개발을 완료, 전기차용 배터리 커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좌영〈사진〉 유니테크노 대표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전기차용 배터리 커버는 내년쯤 본격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유니테크노는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 분야에도 진출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4일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유니테크노는 8월 31~9월 1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9월 5~6일 청약을 거쳐 9월 말경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희망가는 1만300~1만1500원이고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공모 자금 중 일부는 중국 현지법인 설립에 사용된다.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 설립될 두 번째 중국 현지법인은 윈도 모터 부품 등을 생산해 인근에 있는 주요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대형株 뚝심투자…1년간 수익률 19%

**KB자산 '그로스포커스펀드'**
**중소형 가치주 장세 속 '마이웨이'**
**'상위 1%' 성과에 가입문의 급증**

KB자산운용의 대표 장수펀드인 'KB그로스포커스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중소형 가치주 중심 장세에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지만 흔들림없는 투자철학을 고수한 결과 지속적인 환매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는 평가다.

3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KB그로스포커스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A클래스 기준)은 7.4%를 기록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18.8%에 달한다. 특히 26일 현재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0.75%로 동일 유형 펀드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해 눈길을 모은다.

KB그로스포커스펀드는 2002년 11월 4일 출시 후 KB자산운용의 대표 성장주펀드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지만 국내 대형 간판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운용 규모도 78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KB자산운용 리테일본부 유성천 상무는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개선된 이후 가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기존 고객들의 환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신규 자금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전체 수탁고는 순증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운용보고서를 기준으로 KB그로스포커스펀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삼성전자(18.2%), 코오롱인더스트리(5.7%), 현대차(4.1%), 현대모비스(3.4%), 네이버(2.3%), 포스코(2.0%)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또 섹터별로는 IT(23.4%)와 경기소비재(16.9%), 소재(15.4%) 비중이 높다. 이 펀드 내 코스닥 투자비중은 4% 미만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성장주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 기자 ka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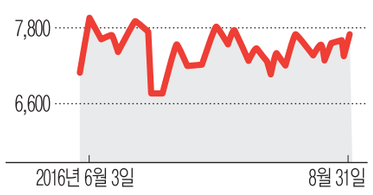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 한국전자인증, 아이폰용 글로벌 표준 생체인증 통과




**한국전자인증 주가 추이**
(단위: 원)




## FIDO 기반 바이오 인증… 내달 출시 '아이폰7' 적용 기대
## 기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인식으로 편의성 높여

다음 달 애플이 아이폰7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전자인증이 아이폰용 바이오 생체 인증 서비스 적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전자인증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 간편인증 기술인 FIDO(Fast IDentity Online) 기반의 바이오생체인증 서비스를 아이폰에 적용하기 위한 인증 심사를 지난 4월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아이폰의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관련해서 한국전자인증의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FIDO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모바일 보안 위협에 대해 쉽고 안전한 '글로벌 인증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조직된 글로벌 연합체다.

한국전자인증은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에 FIDO 1.0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인식을 사용해 편의성을 높인 기술을 선보였다.

전날(현지시간)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7일 이벤트 초대장을 공개했다. 아이폰7을 비롯한 애플의 새 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이벤트의 키노트는 9월 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8일 오전 2시) 진행된다. 제품 시판은 2~3주 후가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인증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홍채 인식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생체인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전자인증은 KB국민은행, SCI평가정보, AIM과 FIDO인증 서비스를 계약하고 생체인증 서비스 공급을 시작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문인증과 홍채인증을 FIDO서비스 방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두에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구·개발한 '액티브X가 필요 없는 바이오 공인인증 서비스'도 적용할 예정이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본부장은 "FIDO인증이 구축사업에서 신뢰된 전문 인증기관을 통한 ASP(발행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되고, '갤럭시 노트7' 출시로 홍채인증도 가능해짐에 따라 게임, 포털, 핀테크 업체 등에서도 생체인증 도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생활서비스에도 생체인증 도입 사례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 차세대 인증 분야에서도 대표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선 크루셜텍, 코렌, 파트론 등 지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인증은 인공지능 로봇 '타이키(Tyche) 1.0' 대한 전 세계 판매를 올 4분기 시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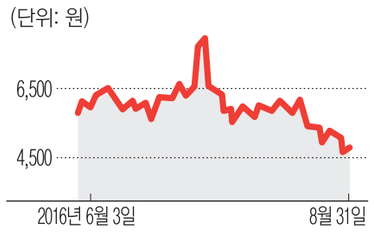
타이키는 보고, 듣고, 말도 하고, 놀면서 아이들 스스로 지능 계발을 하도록 돕는 교사 겸 친구 같은 기능을 갖췄다. 201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4 기술 평가 심사에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기술부문 혁신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타이키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에 이어 올 하반기에 타이키 1.0이 세계 곳곳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 네이처셀 '자가성체줄기세포 배양' 국내기업 2번째 日 제조허가 획득

### 6월 적합성 평가 보완지시 마쳐
### 현지 재생의료 연구개발 박차

**네이처셀 주가 추이**
(단위: 원)




네이처셀은 자가 성체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제2종 특정세포가공물 제조허가'를 일본 정부(후생성)로부터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네이처셀은 지난 2월 15일에 일본 후생노동성에 특정세포가공물(제2종)에 대한 해외 제조허가를 신청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6월 23~24일 이틀간 줄기세포 제조소 현장실사를 통한 특정세포가공물 제조허가 적합성 여부 평가를 받은 후 보완지시를 완료, 제출함으로써 이번에 허가를 받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네이처셀은 자가성체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혈액 EPC, PRP 등 네이처셀의 독보적인 기술을 일본에서 활용 가능하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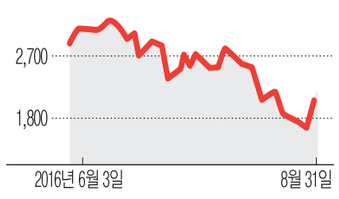
향후 네이처셀은 자체기술력으로 국내 연구소에서 직접 분리 또는 배양한 자가혈액세포, 면역세포, 줄기세포, 혈소판풍부혈장(PRP)을 활용해 피부미용·재생, 면역저하, 난임, 비뇨기질환에 대한 치료목적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네이처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은 "알바이오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일본 정부로부터 줄기세포 제조허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줄기세포 치료 제휴에 대한 공급능력 확대는 물론 혈액세포, PRP와 병행하여 일본 내 재생의료 선두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 아비스타, 中상해방직그룹과 드레스 코드 맞춘다

### 현지 보유 인프라 적극 활용
### 한중 온·오프 유통사업 확장
### 라이프스타일 기획·소싱도

**아비스타 주가 추이**
(단위: 원)




아비스타는 중국 상해방직그룹(ShangTex)과 중국 내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아비스타의 중국현지 법인 '아크렉스차이나(Acrex China)'와 중국 상해방직그룹 내에서 패션관련사업을 담당하는 '상해방직시상산업발전유한공사(ShangTex Fashion)' 간에 양해각서의 형식으로 체결됐다.

상해방직그룹은 상하이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으로 과거 방직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 첨단소재개발 및 각종 무역분야까지 폭넓은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5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해방직그룹이 패션관련 콘텐츠 사업의 강화를 위해 2009년에 설립한 자회사 상해방직시상산업발전유한공사는 각종 브랜드 사업, 쇼핑몰 등 유통사업을 전개·발전시키고 있으며, 세계 4대 패션위크로 발돋움한 '상하이패션위크(Shanghai Fashion Week)'를 주관하고 있어, 중국 내 패션업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상해방직그룹은 향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관련 분야의 온·오프라인 유통사업을 확장하고자 자신들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되, 사업에 필요한 유·무형의 상품기획을 위한 파트너로서 아비스타와 협의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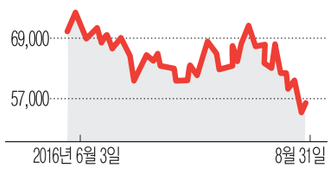
특히 아비스타가 추진 중이던 패션, 화장품, 아동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비스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다.

상해방직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아비스타는 상해방직그룹이 추진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사업에서 한국의 다양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하고 소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비스타 담당자는 "당사가 보유한 브랜드상품 및 당사가 소싱 가능한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기획 및 진행하다 보면 중국 내에서 다양한 홀세일 사업을 전개할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해방직그룹과의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는 올해 FW시즌에 상해방직그룹에서 신규 론칭하는 알리바바 T몰 내 상해방직의 온라인몰 '제인에어(JANE EYRE)'의 오픈을 위한 상품기획으로, 현재 그 협업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성시종 기자 ssj@

**슈피겐코리아 주가 추이**
(단위: 원)




# 슈피겐코리아 '호실적' 상반기 영업익 12%↑

###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과

슈피겐코리아가 올 상반기 사업부문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슈피겐코리아는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762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12%씩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부터 주력 산업이었던 휴대폰 케이스 외 제품군 확장에 집중해온 슈피겐코리아는 올 상반기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매출 비중 90% 이상을 차지하던 휴대폰 케이스는 올 상반기 기준 80% 정도로 그 비중이 작아졌다. 그 외 보호필름, 디지털주변기기, 생활용품 등 기타 제품군 매출 비중이 나머지 20%가량까지 성장했다.

특히 휴대폰 케이스 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 비중을 낮추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륙별 매출 실적 역시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지역인 북미 지역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 매출은 94% 이상 뛰어오르며 본격적인 매출처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유럽시장의 경우, 북미시장과 매우 비슷한 유형으로 아시아 시장보다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한 탓에 채널확대와 더불어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제품판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외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중동 등 기타 대륙군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7%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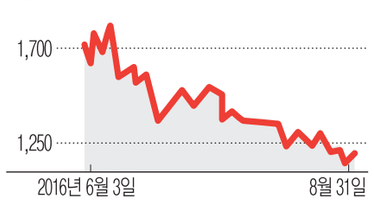
최철규 슈피겐코리아 본부장은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그간 슈피겐코리아가 집중해 왔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나 매출거점 균형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내년 역시 밝은 전망이 예측되고 있어 북미 지역 외 제2의 성장 거점으로 다양한 신제품들을 선보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록 기자 syr@

# 솔고바이오 수소수 활용 임상시험 당뇨·아토피·관절염 등 항산화 효과

### 환자 20명에 음용·입욕 등 시행
### '치료보조제' 역할 가능성 기대

**솔고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솔고바이오가 건강기능수로 알려진 수소수를 활용한 임상시험에서 당뇨병 등 질환의 증상이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솔고바이오는 수소샘 시리즈 '수소샘 디스펜서 디럭스', '수소샘 텀블러'를 사용한 아토피, 당뇨병, 류머티즘 관절염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항산화 효과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20여 명의 환자들 모두 질환이 호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수소수 음용과 입욕을 시행한 아토피 시험군의 경우 전 참가자의 피부염이 완화됐으며 염증에서 체취한 세균 양이 감소했다.

당뇨 시험군은 수소수 음용으로 전체 환자의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 또 류머티즘 관절염 시험군도 수소수를 음용한 후 체내 항산화력이 25% 이상 증가해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결과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수소샘 시리즈도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항노화 전문병원 등 치료보조제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7월 대한수소의학회 발족 등 수소수의 의학적 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솔고바이오는 최근 35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며 수소수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소수 R&D 지원, 임상시험 투자 등 연구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드림티엔터 2대주주' 이매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 지분 15.63% 버유… 지난 6월 합병계약 해지당시 부실징후 의심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예당)는 법원에 드림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0일 이매진아시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골든브릿지제4호스팩과의 합병 계약 해지, 부실경영과 경영상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이매진아시아는 현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지분 15.63%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있다.

코넥스 상장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골든브릿지제4호스팩과 합병을 결정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하며 합병 계약이 해지됐다.

이매진아시아 관계자는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주요주주로서 합병결정과 합병철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했다"며 "기타 부실경영과 경영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후를 파악하고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서 당사가 정도경영을 하며 주주들의 권익증진에 힘을 쓰는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 벅스, 황치열·마마무 소속사 '하우엔터' 지분 70% 인수

### 110억 규모 유증 참여…음악 콘텐츠 제작·소비 등 '수직 계열화'

벅스가 연예기획사 하우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

벅스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하우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0%에 대한 투자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우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구주 1만1951주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6830주를 총 110억29만4634원에 인수하게 되며, 9월 26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설립됐으며 현재 황치열, 마마무, 긱스가 소속돼 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41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인수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시너지를 위한 것이다. 벅스는 음악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하우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벅스 측은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K팝 콘텐츠를 생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Re:Energy」

에너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다시 생각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에너지를 위해 -

그것은 이제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문제이며

인류가 꼭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의 에너지 라이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효율 태양전지 ·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전기차 배터리/충전기 · 스마트 LED/OLED 조명 · 스마트 빌딩 시스템 · 스마트 시스템 에어컨 · 고효율 단열 시스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LG